

INVITATION
TO THE
ARTS

DECEMBER

예술계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12** vol.300

Cover Story

2017년 힘찬 첫발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세계의 공연장
베를린 필하모닉과 필하모니아

축제속으로 고고
서울독립영화제 2016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okyo Philharmonic Orchestra & Pinchas Zukerman & 핀커스 주커만

Verdi Nabucco Overture | Bruch Violin Concerto No.1 | Tchaikovsky Symphony No.5



TOKYO PHILHARMONIC

지휘 안드레아 바티스토니

Chief Conductor Andrea Battistoni



Global art management
GART®

바이올린 핀커스 주커만

Violin Pinchas Zukerman



2016. 12.6(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051-607-6066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티켓



인터파크 1544-1555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VIP석 8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지휘자 이영철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진병호



바리톤 고성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용철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박종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5회 정기연주회·부산시립합창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 음악회



사회 강석우



극악인 김용우



극악인 오정혜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임한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이진륜

부산시립예술단 기념공연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제4악장 외

2016.12.16.(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후원 부산MB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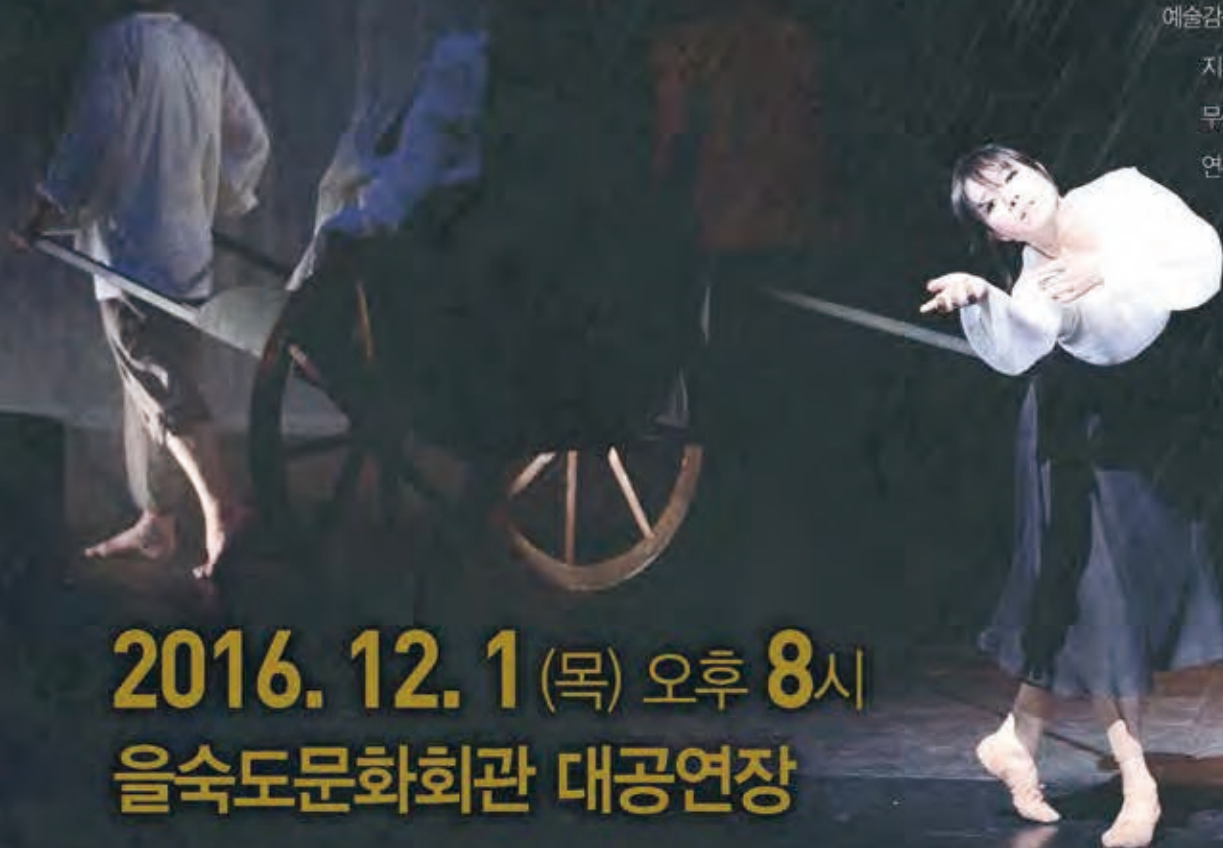
문의 051-607-6065, 051-607-3105~7, 051-607-3151, 3102(정기회원)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발레 걸
Balletcal

고수홍은 나혼

원작 **현진건**
예술감독 **김원명**
지휘 **이효상**
무용 **김옥련발레단**
연주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2016. 12. 1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예술회관연합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김옥련발레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리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주)징모아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본 공연은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순이 할배 제작진이 전하는 또다른 감동스토리!"

뮤지컬

나름 목소리

에게만 리는 소리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의 051)749-7651

2016. 12.16(금)~12.31(토) 2017. 1.6(금)~1.22(일)

평일 PM. 8시 / 토요일 PM. 3시, 6시 / 일요일 PM. 3시 / 월요일 휴무 *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PM. 3시, 6시

2016

Happy New Year

송년음악회



소프라노 김아연 / 바리톤 정승화 / 피아노 김효성 / 사비 이유진



팝인라이프 / 지휘 최낙봉 / 조태가수 수진 / 조태가수 최우

2016. 12. 29(목) | 19시 30분 | 해운대문화회관관 해운홀

주최·주관 Sun&Fun 해운대문화회관 티켓 전석10,000원, 누림회원 1,000원에매 **☆인터파크** 문의 051) 749-7651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기적의 순간을 스펙터클한 감동으로 담아낸
 롯시니 오페라 "모세"

MOSÈ



합창 | 한국오페라합창단 나드림미션과이어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16년 12월 29일(목) 오후 4시, 7시30분

- 주최 | 온누리 오페라단 **문화공감**
The Global Opera Company Entertainment
- 주관 | (사)한국CBMC부산총연합회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복음화운동본부
- 협찬 | DISR 2016 주식회사 **아베스건설** **김형권내과의원**
- 티켓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 예매 : **리케릭** 문의 : 010-3839-1084

CONTENTS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2017년 힘찬 첫발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 12 **12월 공연 캘린더**
- 14 **세계의 공연장**
베를린 필하모닉과 필하모니아
- 18 **축제로서 고고**
서울독립영화제 2016 '럭키드로우'
- 20 **우리는 문화가족**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
- 22 **테마가 있는 여행**
홍류동 계곡 따라 늦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합천 해인사

BOARDS INSIDE



- 28 **프리뷰**
- 34 **리뷰**
- 36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4 **새로 나온 음반**
- 55 **새로 나온 책**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12월호 통권 300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11월 25일 인쇄처 호민디앤피 051 807 5100

2017년 힘찬 첫발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핀커스 주커만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 8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6

2016 송년음악회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5

2016 제야음악회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42



지휘 안드레아 바티스토니



바이올린 핀커스 주커만

세계적 명성과 만난다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핀커스 주커만

2017년 1월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을 앞두고 12월 한달간 그 시작을 알리는 풍성한 무대로 부산시민과 만난다.

그 무대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 명성의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도쿄 필)와 그 이름만으로 경이로움을 불러 일으키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교육자인 핀커스 주커만(Pinchas Zukerman). 일본 최초의 교향악단으로, 올해로 창립 105주년을 맞은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특히 올해 9월 지휘자 정명훈이 명예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면서 한국 관객과도 아주 친숙하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1987년 생으로 올해 10월, 20대의 나이에 도쿄 필 수석지휘자로 임명되면서 화제가 된 안드레아 바티스토니(Andrea Battistoni)가 지휘하고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이 도쿄 필과 호흡을 맞춘다.

‘베로나의 젊은 지휘자’ 안드레아 바티스토니는 2012년 24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지휘하며 ‘라 스칼라’ 오페라를 지휘한 최연소 지휘자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도 수많은 국제무대의 오페라 작품을 지휘하면서 대중에게 그 이름을 알렸던 바티스토니는 2013년 스위스 제노바의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게스트 지휘자, 2015년 도쿄 필 수석 게스트 지휘자로 지명됐으며, 현재 지휘는 물론 작곡, 저술에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관객과 만나는 핀커스 주커만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신으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텐과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의 후원으로 지난 1962년 도미, 줄리어드음악원에서 수학했다. 1967년 레빈트리트 콩쿠르에서 정경화와 공동우승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1968-1969년 시즌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핀커스 주커만은 유리 바슈메트와 더불어 비올라를 독주악기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될 만큼 비올리스트로서도 정상의 위치에 서 있으며, 1974년부터는 실내악단을 지휘하기 시작해 지금은 바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이영철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고성현

送年

올리니스트로서뿐 아니라 지휘자로서도 그 명성이 높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을 시작으로 브루흐의 대표작 이자 낭만적인 선율의 매력과 화려한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거침없는 관현악의 울림과 낭만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으로 관객들을 감동의 세계로 이끈다.

화합의 메시지로 깊은 감동을 전하다 2016 송년음악회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을 기념하는 두 번째 주인공은 부산시립예술단으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는 '2016 송년음악회'로 희망찬 2017년을 준비한다. 객원지휘자 이영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를 비롯해 사회를 맡은 연기자 강석우,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전병호, 바리톤 고성현, 국악인 김용우, 오정해, 광주시립합창단이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극단이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희망의 도시, 부산'.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의 극작가 김보경이 창작하고 예술감독 곽종필이 연출한 '희망의 도시, 부산'은 부산의 상징 자갈치 시장을 배경으로 자갈치 아지매와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부산문화회관과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을 노래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신명 넘치는 우리음악으로 축제의 장을 펼친다.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 변화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시킨 박범훈 곡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을 시작으로 흥이 넘치는 우리민요 '아리랑 연곡', '장타령', '너영나영'을 소리꾼 김용우와 오정해가 들려준다. 영화 '서편제'의 히로인으로, 영화, 약곡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오정해는 지난 2004년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즐거워라 무릉도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부산시립예술단과도 인연이 깊다.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1 KBS국악대상 민요대상,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올해의 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김용우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이수자, 국악방송 '김용우 소리길을 나서다' 진행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다양한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풍자와 해학을 가득 담은 무용극 '안녕하세요'로 무대에 선다. 예술감독 김용철이 안무를 맡은 '안녕하세요'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듯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6 송년음악회'의 마지막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베토벤 교향곡 '합창'은 부산문화회관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2월 송년음악회를 통해 무대에 올리면서 부산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레퍼토리로,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4년 러시아 최고의 교향악단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지휘, 러시아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지휘자 이영철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전병호, 바리톤 고성현이 출연한다. 매년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특히 제4악장은 사랑과 평화, 환희를 중심 주제로 한 쉐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여 박애의 정신과 화합의 메시지를 깊은 감동으로 전한다.

지휘자 이영철은 미국 메네스음대에서 학사(호른), 뉴욕주립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했다. 현재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객원 지휘자 및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들의 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창원대학교 교수, 호산나찬양대 지휘자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은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G.Rossini 국립음악원, OSIMO 아카데미 및 MANTOV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연속 2회 1등, 이리사아카데미 고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등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이태리 페르니의 베르디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를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오스트리아 빈국립오페라극장, 그라츠오페라극장에서 수십 편의 오페라에 출연한 바 있으며, 귀국 후에도 솔리스트 및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고성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 밀라노 La Scala 아카데미아, 오지



지휘 성기선



첼로 송영훈



가수 박기영

除夜

모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동안 이태리를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유명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왔다. 고성현은 이태리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나비부인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난파음악상, 젊은 음악가상, 공연 전통 예술분야 문체부장관상, 육관문화훈장(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KA), 에센음대(KE)를 졸업한 테너 진병호는 독일 Deutsche Oper am Rhein International Opernstudio 전속 솔리스트, Theater Hagen 전속 주역가수, Staatsoperhannover, Sachsen 주립극장, 윈스터 객원 가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오페라, 오라토리오, 콘서트 전문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다 2016 제야음악회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6 제야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2016년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특별한 새해를 맞는다. 제야음악회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는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올해 5월 강남심포니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휘자 성기선이 지휘하고 전 부산MBC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을 비롯해 지난해 2015 이탈리아 국제 타악기 콩쿠르 마림바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강윤서, 올해 제5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시상식에서 '아랑가'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뮤지컬배우 강필석, 2010년 국민 뮤지컬 '맘마미아'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올해 '소피'역으로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친 뮤지컬배우 박지연,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 대표 여성 싱어송라이터 박기영,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출연,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이번 무대의 지휘자로 부산시민과 만나는 성기선은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줄리어드음대 대학원, 커티스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하고 미

국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 지휘자, 뉴욕 심포니에타 음악감독, 코넬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청년 지휘자콩쿠르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입상, 리스본에서 4차례 연주회를 가졌으며, 2000년에는 케네디센터에서 Washington National Symphony를, 1999-2000년 시즌에는 시카고 심포니의 음악감독인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에 의해 시카고 심포니의 Apprentice Conductor로 발탁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성기선은 2009년부터 예술의전당 주최 청소년 음악회 시리즈의 전임지휘자로 초청받아 2012년까지 정기적으로 강남심포니를 지휘하며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부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부르흐의 '콜 니드라이 작품 47'과 사라사테 '피고이네르바이젠'을 첼리스트 송영훈과 마림바 연주자 강윤서가 각각 들려준다. 9세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랄로 협주곡' 협연으로 데뷔, 2001년 대통령상 수상, 이듬해인 2002년에는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 파울로 첼로콩쿠르에서 입상해 같은 해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에 임명받은 송영훈은 클래식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며 다양한 무대와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영훈은 현재 연주 활동 외에도 KBS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림바 연주자 강윤서는 2013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타악기 중등부 1위, 201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콩쿠르 타악기 중등부 1위, 서울예술고등학교 교내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2년부터는 금호영재콘서트에 꾸준히 서우고 있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는 2부 무대에서는 경쾌한 트럼펫 소리가 흥을 돋우는 로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을 시작으로 뮤지컬 '맨 오브 라 만차', '맘마미아' 등 뮤지컬 배우 강필석, 박지연이 들려주는 유명 뮤지컬 넘버에 이어 TV프로그램 '오페라스타 2012' 우승,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출연 등으로 유명한 가수 박기영이 그녀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2부 시작 전 휴식시간 로비에서는 지난 2013년 미국 전통 재즈 빅밴드로 창단한 빅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와인, 다과를 즐기며 2017년을 기원하는 소망엽서 적기 이벤트가, 공연 후에는 야외에서 2017년 새해를 맞는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12

2016 DECEMBER

전시실

제32회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 대전시실

11월 30일(수) - 12월 7일(수)
문의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517-6568)

제34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 대전시실

12월 11일(일) - 12월 13일(화) [1부]
12월 15일(목) - 12월 17일(토) * 오전 12시까지 [2부]
* 12월 17일(토) 오후 2시 국제회의장-시상식
문의 : 정일환(010-5488-3375)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시회 - 대전시실

12월 19일(월) - 12월 22일(목)
문의 : 박중선(010-2022-3003)

제19회 대한서화예술대전 - 대·중전시실

12월 24일(토) - 12월 26일(월) * 오전 12시까지
* 12월 24일(토) 오후 2시 국제회의장-시상식
문의 : 윤미경(010-9957-4889)

4	5	6
<p>대 2016 부산오페라 WEEK 베네치아 라 페니체 국립극장·파르마 왕립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17:00 18만원·13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소 한얼악회 제10회 정기연주회 '낙조청강에 배를 띄우고' 17:00 무료/채수만(010-4503-1175)</p>		<p>대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핀커스 주커만' 19:30 8만원·5만원·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한국춤아카데미 풍류 14기 발표회 15: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01, 3154)</p>
11	12	13
<p>대 론 브랜트의 재즈 크리스마스 17:00 7만 7천원·6만 6천원·5만 5천원·3만 3천원 문화락(1600-1602)</p> <p>중 UKO 유스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17:00 균일 5천원/양보람(010-3863-3087)</p> <p>소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17:00 초대/김은경 후원회(010-9073-1279)</p>	<p>소 이야기와 함께하는 박보경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보경(070-4806-2796)</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공연' 11:00 균일 2천원(예약단체 관람) 부산시립예술단(607-3148, 3154)</p> <p>소 ACE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ACE(010-9328-9037)</p>
18	19	20
<p>대 메시아합창단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17:00 균일 1만원/메시아합창단(010-9709-2172)</p> <p>소 제1회 금동훈 타악독주회 '도전' 17:00 무료/금동훈(010-4406-6618)</p>	<p>대 오페라 데뷔 25주년 바리톤 박대용 독창회 19:30 초대/양보람(010-3863-3087)</p> <p>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우드윈드앙상블(010-5660-3919)</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01, 3148)</p> <p>소 2016 손한별의 음악공방 19:30 초대/손한별(010-6645-1564)</p>
25	26	27
		<p>대 센텀합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9:3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센텀합창단(010-3136-7798)</p> <p>소 유한승 재즈 기타 콘서트 19:00 무료/유한승(010-4938-9618)</p>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1 중 소프라노 관현악 독창회 19:30 2만원·1만원/윤예술기획(010-9025-2012) 소 이종희 대금 연주회 '대금산조, 처음을 보다' 19:30 초대/이종희(010-4558-0543)	2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V '독일음악여행 II'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 소 피아노와 함께하는 비엔나의 밤 19:30 균일 1만원/차미령(010-3075-1086)	3 대 2016 부산오페라 WEEK 베네치아 라 페니체 국립극장·파르마 왕립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19:00 18만원·13만원·8만원·5만원·3만원 솔로페라단(1544-9373) 소 토요일상설무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7 소 페스티보 클라리넷 콰이어 그리고 페스티보 플루트 콰이어 '두 개의 연주회, 그 두 번째 이야기' 19:30 무료/페스티보 콰이어(010-2561-6047)	8 대 2016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461-4296) 소 발달장애인 앙상블 '더날개' 창단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사)선민사회복지회(010-5230-4920)	9 중 다원국악관현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다원국악관현악단(010-6368-5133) 소 수영구노인복지관 제7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17:00 무료/수영구노인복지관(759-6070)	10 대 프리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프리바이올린오케스트라(010-6773-6772) 중 2016 로얄비츠 페스티벌 컴퍼티션&합창 콘서트 13:00 2만원·1만원/쑤퍼니웍스(02-3397-7180) 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14 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사랑나눔 송년 공연' 11:00 초대(예약단체 관람) 부산시립무용단(607-3101, 3154) 소 안세웅 타악기 독주회 19:00 무료/김숙희(010-2551-9743)	15 소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종합발표회 19:30 부산문화회관(607-3104, 3155)	16 대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 '2016 송년음악회' 19:3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17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17: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01, 3146) 중 제13회 소프라노 구은희와 떠나는 세계가곡·오페라 여행 17:00 균일 1만원 프리아트컴퍼니(010-3512-0099) 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1 대 2016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9:30 7만원·5만원·4만원·3만원 부산문화(600-1803)	22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8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 소 앙상블 아리 세 번째 공연 '색다른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앙상블 아리(010-6803-3886)	23 대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초대(인터넷 신청) 부산대학교(510-1296, 1299) 중 La Danse, Ballet Conceter 19:00 균일 1만원 T.A.S 2014(746-0102, 010-3733-4056) 소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극동 아리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 '필릭이는 태극기' 16:00, 19:00 무료/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304-1381)	24 소 토요일상설무대 'TDC앙상블'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8 대 UKO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19:30 균일 2만원/UKO오케스트라(010-3863-3087)	29 대 2016 송년자선 사랑나눔음악회 The Christmas Cantata '성탄의 축복' 19:30 3만원·1만원/U Foundation(010-3513-4410) 소 Arioso 노래하듯이 19:30 무료/전하라(010-4663-8117)	30 중 이주은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주은(010-5305-5170) 소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 특별연주회 19:00 초대/정재은(010-4855-3360)	31 대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 '2016 제야음악회' 22:3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 소 토요일상설무대 'The 多樂'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냉전이 만든 문화도시 베를린 베를린 필하모닉과 필하모니아



글·사진 이상 훈 드림원정대 대표

많은 도시들이 오페라 극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도시에 3개의 오페라극장-베를린 국립가극장(Berlin Staatsoper), 도이치 오페라(Deutsche Oper), 코미쉬 오페라(Komische Oper)-이 존재하는 곳은 흔치 않다. 그것도 시즌별로 거의 매일 오페라가 무대에 올라가는 곳은 언뜻 기억에도 베를린을 제외하면 프라하 정도가 유일하다. 비엔나 역시 복수의 오페라 극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뮤지컬과 같은 공연을 병행하고 있다.

또 관현악단은 어떠한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er Philharmoniker), 도이치심포니 오케스트라(deutsche symphonie orchester berlin), 베를린 슈타츠크펠레(Staatskapelle Berlin), 베를린 방송교향악단(Rundfunk Sinfonieorchester Berlin),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Konzerthausorchester Berlin), 한 도시에 무려 다섯 개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 역시 베를린과 런던이 유일하

다. 게다가 베를린 필하모닉은 자타 공인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이 아닌가. 물론 EU 유럽연합의 중심국인 독일이 최근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면에서 유럽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베를린의 공연단체와 공연장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비단 공연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다. 미술관 역시 박물관 섬(Museum Insel)을 위시로 한 페르가몬 박물관, 노에/알테 뮤지엄, 보테 미술관, 그리고 베를린국립회화관, 신국립 미술관,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등... 무수히 많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전과 분단의 역사에 답이 있다.

베를린 국립가극장은 1742년 만들어졌지만 2차대전의 폭격으로 완전 파괴가 되었다가 1955년에 다시 재건되었다. 하지만 베를린 미



베를린 필하모니아

테지역, 운터 덴 린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에 서베를린 시민들은 시민극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늘 새로운 극장 건립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반대여론이 더 컸다. 금세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체제 경쟁이 가열화되고 냉전이 무르익을 무렵인 1960년대에 이르러 서베를린 시민들의 생각은 바뀌게 된다. 더군다나 1947년 동베를린에 독일 오페라 연출의 거장 발터 펠젠슈타인의 코미쉬 오페라 출범하고 이어 1955년 베를린 국립극장이 재건되자 서독 정부는 국가의 명예와 문화적 자부심을 걸고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오페라 극장을 만들 목적으로 1961년 서베를린의 비스마르크 32번가에 도이치 오페를 개관한다. 이는 사실상 동, 서독 간의 문화경쟁이었다. 서베를린은 사실상 동독 영역 안에 존재했기에 마치 섬과도 같았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오히려 동구권 문화를 향한 침범의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 건립된 서베를린의 문화시설 중 대표적인 게 티어가르텐 남쪽에 위치한 문화포럼지구(Kulturforum)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콘서트홀과 도서관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베를린 장벽이 위치해 있던 포츠다머 광장과 이웃해 있기에 그 의도가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곳에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아(Berliner Philharmonie)가 자리 잡고 있다.

오랫동안 베를린에 소재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장소는 젠다르멘마르크트에 위치한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였다. 하지만 이 역시 동베를린 령에 위치해 있었기에 서독 정부는 브레멘 출신의 건축가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에게 최고의 공연장을 의뢰한다. 바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이 상주하게 되는 필하모니아이다.

몇 해 전 한 클래식 레이블에서 권위있는 평론가의 의견을 모아 세



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랭킹(World Top 20 Orchestra)을 발표한 적이 있다. 간혹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서트헤보우에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은 베를린 필하모닉이다. 1882년 창단 이래 베를린과 독일을 넘어 전 세계 클래식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휘봉을 잡고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카라얀의 모습은 한두 번쯤 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베를린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베를린 필하모닉과 필하모니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전통의 오케스트라 홀은 빈의 뮤직페라인,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와 같이 장방형 구조의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음향학적으로는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1층 객석이 경사면이 없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다. 특히 2층 사이드의 발코니는 아예 시야 장애석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객석 수용 능력도 유리하지 못하다. 기존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도 그러하다.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연장의 일반적인 형태로 프로시니엄 타입의 극장에서 공연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료의 발달

로 대형 캔틸레버(Cantilever:벽체 또는 기둥에서 튀어나온 보로서 한쪽만으로 받쳐지고 있다)가 가능했기에 2, 3층까지 객석을 확장하며 시야에 장애가 없는 다목적 공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듯 프로시니엄 극장이 이미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문화포럼시구의 필하모니아는 오케스트라 전용극장에 한 획을 긋는 연주홀을 탄생시킨다. 노란색 외벽을 가진 외관은 마치 서커스단의 빅탐시어터 같이 생겼지만 그 내부를 보면 당시로는 혁신적인 평면과 입면 구조를 띄고 있다.

무대를 가운데 두고 5각형의 객석은 마치 모젤 지역의 포도밭을 연상시키듯 경사면을 두고 객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덕분에 무대의 모든 면이 객석에 둘러싸여 있어 시선거리가 짧고 시야가 좋다. 물론 음향학적으로도 이상적이다. 베를린 필하모니아는 클래식 전용극장의 새로운 전형이 되어 이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파리 필하모니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많은 극장에서 이러한 디자인 형태를 차용했으며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함부르크의 엘브 필하모니아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디자인 컨셉이다. 바로 현대 오케스트라 전용극장의 원형이 이곳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04



05

- 01 베를린 필하모니아 내부
- 02 지휘자 사이몬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 필하모니아 입구
- 04 베를린 국립극장-실러극장
- 05 코미쉬 오퍼

필자가 해마다 연말을 베를린에서 보낸 지도 몇 해 되었다. 올 해도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리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송년음악회(Silvesterkonzert) 관람을 위해서이다. 세계의 도시와 공연장 연재를 맡으면서 12월은 꼭 베를린을 소개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 이유다.

‘송구영신(送舊迎新)’, 이 시기엔 많은 사람들이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NeurJahrKonzert)를 이야기 하지만 베를린 필하모닉의 송년음악회도 그에 못지않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피아니스트 랑랑과 바이올린의 여제 안네 소피무터 등이 협연했으며 올해는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다닐 트리포노프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물론 지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 사이몬 래틀(Sir Simon Rattle) 경이다. 베를린 필의 송년음악회 연주는 영상으로 중계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음반으로 출시되기도 한다.

2015년 6월 세계 음악계는 베를린발 빅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는

데, 2018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새 지휘자 선출 소식이다. 다른 쟁쟁한 독일 출신의 적통 지휘자를 물리치고 1972년 생의 유대계 러시아인 키릴 페트렌코가 선출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로 이제 44살이다. 독일 정통 교향악단에 유대인 지휘자, 아니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황제 자리라는 별칭까지도 따르는 베를린 필하모니 수석지휘자의 자리이기에 이 사실은 많은 것을 대변한다. 전임 지휘자도 영국인 사이몬 래틀, 그리고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의 음악감독은 아르헨티나계 유대인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다. 베를린은 그들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시설에 안주하지 않았다. 실력만 있으면 인종과 국적을 넘나드는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유럽에서는 베를리너(Berliner), 즉 ‘베를린 사람들’이라는 말이 시쳇말로 뜨고 있다. 아니 이미 ‘베를리너’라는 말은 뉴욕커, 파리지엔에 버금갈 만큼 통용되고 있다. 오늘날 베를린이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선 가장 큰 이유이다.

lucky draw

서울독립영화제 2016

럭키드로우

THE 42ND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12월 1일(목)~9일(금)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02-362-9513, www.siff.or.kr



우리나라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축제 ‘서울 독립영화제 2016’이 12월 1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올해로 42회를 맞는 서울독립영화제는 연극, 실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한 해의 독립영화를 아우르고 재조명하는 자리로, 독립영화인들의 연대와 소통의 공간을 지향한다.

지난 1975년 한국청소년영화제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은 서울독립영화제는 1988년 금관상영화제, 1996년 금관청소년단편영화제, 1998년 한국청소년단편영화제(1998년)를 거쳐 1999년부터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 경쟁 독립영화제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2년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에 이르렀다. 그 오랜 전통과 역사만큼 서울독립영화제의 발자취는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의 슬로건은 ‘럭키드로우(lucky draw)’,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고르는 선물 꾸러미 또는 제비뽑기’를 뜻하는 럭키드로우처럼 올해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제 역대 최다 공모 편수인 1,039편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이번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경쟁부문 단편 30편, 장편 9편과 신인 감독의 도전의식이 돋보이는 ‘새로운선택’ 25편,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 독립영화를 모은 특별초청 41편, 해외초청 8편이 상영된다. 이 중 경쟁부문 단편은 극영화 20편, 애니메이션 2편, 실험영화 3편, 다큐멘터리 4편, 기타 1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쟁부문 장편은 극영화 4편과 다큐멘터리 5편으로, 이 중 7편이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상영된다. 단편 부문에서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단편부문 대상 및 제15회 미장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지원 감독의 ‘어름밤’,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우수상 수상작인 이나연 감독의 ‘못, 함께하느’, 제16회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대상을 거머쥔 정다희 감독의 ‘빈 방’이 눈에 띄며, 장편 부문에서는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과 관객상 2관왕을 차지한 김일란, 이희상 감독의 ‘공동정범’, 제16회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에서 한국최고구애상을 받은 박배일 감독의 ‘깨어난 침묵’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이는 프리미어 작품은 해외초청작과 개막작을 제외하고 전체 105편 중 총 30편으로, 특히 경쟁부문 단편 상영작 총 30편 중 1/3 이상을 차지하는 11편이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독립영화를 앞장서 소개하는 해외초청 섹션에서는 총 상영작 8편 중 5편이 코리안 프리미어, 1편이 아시안 프리미어로 공개되며, 베를린, 베니스, 로카르노영화제 등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돌풍을 몰고 온 작품들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국, 중국, 필리핀의 위안부 생존자 세 명의 투쟁을 다룬 ‘나비의 눈물’을 비롯해 작가 에드 루샤의 비밀스런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록키2를 찾아서’, 실존 미술작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라스트 패밀리’, 그리스 십대들의 일상을 포착한 ‘파크’, 폭력적인 성향의 청소년들이 휘말린 사건을 다룬 ‘디스트렉션 베이비스’, 도시로 이주한 중국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 ‘상하이 청춘’, 누명을 쓰고 장기 복역한 여성의 삶을 통해 사회 밑바닥의 진실을 마주하는 ‘떠나간 여인’,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면이 충돌하는 현실을 담은 ‘악당들’ 등 8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신인 감독의 작품과 창작활동을 주목하고 지지하는 섹션 ‘새로운선택’에서는 올해 단편으로 내공을 쌓은 감독들의 첫 장편영화와 독립영화계의 문을 두드리는 신예들의 데뷔작이 눈길을 끈다. 단편 작품을 통해 서울독립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던 강유가람 감독의 ‘이태원’과 손태겸 감독의 ‘아기와 나’부터 20대의 고민을 발랄한 감각으로 풀어낸 강민지 감독의 ‘천에 오십 반지하’, 윤가현 감독의 ‘가현이들’까지 신선한 매력이 돋보이는 상영작이 시선을 끈다. 기성 감독의 원숙한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초청 국내부문에서는 낮익은 이름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김태일, 주로미 감독의 ‘민중의 세 계사’ 연작인 ‘올 리브, 올리브’와 태준식 감독의 ‘춘구석’, 김정 감독의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 등 연륜 있는 감독들의 신작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관객상을 수상한 이동하 감독의 ‘위켄즈’, 픽사 애니메이터로 알려진 에릭 오 감독의 ‘O’ 등 각양각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서울독립영화제 2016 개막식은 12월 1일 오후 7시 CGV압구정 1관에서 영화배우 권해효, 방송인 류시현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석영 감독의 ‘재꽃’이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재꽃’은 ‘들꽃’, ‘스틸 플라워’에 이은 박석영 감독의 ‘꽃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특히 ‘스틸 플라워’는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2015 대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엄마가 죽은 후 홀로 남겨진 소녀가 가족을 찾아 길을 떠나는 내용으로, 감독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녹아있는 ‘재꽃’은 신인배우 정하담이 전작에 이어 주연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다.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

“자, 여기서 배우 선생님의 대사와 연주가 끝나면 무대로 나오세요. 비가 내리는 설정이니 비가 온다 생각하고 비를 피하는 시늉을 하면 돼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지난 12월 16일 오후, 동구 범일1동 주민센터 지하 1층에 자리한 대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초등학교생 30여 명이 뮤지컬 연습에 한창이다. 이날은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의 연습이 있는 날, 오후 5시가 넘어서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이자 연습실은 어느새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와 대사 외우는 소리로 가득 찬다.

지난 10월 4일 창단한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범일1동 주민센터가 올해 5월 시행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복동(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범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체(공동위원장 최석운, 박세웅)와 우리들의 집, 범일지역아동센터, 선암지역아동센터, 무지개아동센터 등 동구 지역에 자리한 아동센터 4개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현재 이들 지역 아동센터 4곳의 어린이, 청소년 45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단식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현재 선암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인 김미연 씨가 단장으로 있으며, 동구와 직,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베누스 토악단(단장 조홍용)과 양철지봉극단(대표 김태원), 허동극장(대표 허동환)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악기 연주와 연기 지도를 맡고 있다.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범일1동 주민센터에서 악기연주와 연기, 노래파트로 나뉘어 연습을 갖고 있다.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극단이 아닌 ‘악극단’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이 악기연주뿐만 아니라 노래, 연기 등 문화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 악극단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김미연 단장. 지역 아동센터에서 강습용으로 사용하던 악기를 기증하면서 악극단에서 배우는 악기들 또한 바이올린, 플루트를 제외하고는 기타, 오카리나, 우쿨렐레, 크로마하프 등 생활 악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 악기가 빚어내는 색다른 앙상블이 악극단과 묘하게 어울린다.

“아무래도 여느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악기 구성이다 보니 악기를 지도하고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악극단 지휘를 맡고 있는 베누스토악단의 최경희 씨는 그래도 조금씩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연기는 처음이라 아직까지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들에게 연기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윤순희 씨는 양철극단 단원으로 김태원, 송수영 씨와 함께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 이밖에 베누스토악단의 조홍용 대표가 악단 지도를, 이주연(플루트), 유지형(바이올린), 김순옥(우쿨렐레), 이미진(성악) 씨가 개별 악기 지도를 맡아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지난 11월 3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6 기악생활문화연합 창립 예술제’ 무대를 통해 첫 데뷔무대를 가졌다. 창당한 지 겨우 한달 만에 선 무대라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지

만 무사히 공연을 끝내면서 단원들은 물론 지도한 선생님들에게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요즘 12월에 있을 창단공연을 앞두고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창단공연은 12월 9일 저녁 6시 30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뮤지컬 ‘그 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루미네 수녀를 기리며...’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작품은 지난 1989년 동구 안창마을에서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며 21년간 봉사과 희생의 삶을 살아온 루미네 수녀를 기리는 무대로,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소재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범일 주니어 시나브로 악극단은 앞으로도 동구의 역사인 이바구 길이나 이중섭거리 등 동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접목시킨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계속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흥류동 계곡 따라 늦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합천 해인사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난 11월 11일, 정기회원과 함께 떠나는 제 192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1월 테마 여행지는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 합천.

그 전날 내린 비로 어느 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은 정기회원 가족들은 늦가을 정취 속으로 떠나는 막바지 가을여행으로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이번 합천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오숙례, 이현숙 씨가 동행했다.

2시간 30여 분을 달려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법보사찰 해인사에 도착했다.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부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을 지나 두 번째 문인 봉황문 앞에 서면 해인사 창건 식수로 알려진 1,200년 수령의 고사목이 해인사의 오랜 세월을 말해준다. 봉황문에 들어서면 탕화로 그려진 사천왕상이 방문객을 준엄하게 내려다본다. 험악한 표정의 거대 장승이 서있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탕화로 그려진 것은 사천왕이 불에 타 소실되었기 때문. 해인사는 지금까지 7번의 화재가 났는데, 그래서 봉황문 앞에는 불이 나지 말라는 기원을 담은 돌무덤 '염주석'이 자리하고 있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해탈문을 지나 설법을 듣고 공부하는 구광루(九光樓)에 이어 절의 중심인 대웅전 앞에 서자 '대적광전'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화엄경을 중심으로 창건된 해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다른 사찰과 달리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대웅전을 '대적광전'이라 한다. 대적광전을 둘러보는 사이



어느새 스님이 두드리는 법고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해설사의 설명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점심 공양시간. 해인사 공양간에서 정갈하면서도 담백한 소찬으로 점심공양을 마친 회원 가족들은 해인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경판전 마당에서 볼 때 바깥쪽에 해당하는 앞 건물은 수다라장, 뒤에 있는 건물은 법보전으로, 이 두 건물에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습니다. 장판경전은 벽면의 위 아래 창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했으며, 습기가 많을 때는 머금고 습기가 없을 때는 내보낼 수 있도록 내부 흙바닥을 소금, 숯, 횃가루, 모래로 쌓는 등 최적의 향온, 향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0년 가까이 대장경판 원형을 잘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쏟아진다.

장경판전을 마지막으로 해인사를 모두 둘러본 정기회원들은 여행 출발 전부터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해인사 소리길 탐방에 나섰다. 해인사 입구에서 흥류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해인사 소리길은 특히 붉은 가을 단풍이 장관이라 '흐르는 물조차 붉다'하여 이름 붙여진 흥류동 계곡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수백년 된 송림 숲속에서 뿜어 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웅장한 바위를 휘감아 도는 청아한 물길과 폭포, 산새 소리와 해인사의 풍경소리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원래는 대장경천년관에서 출발해 해인사를 거쳐 학사대까지 2시간이 소요되는 길이나 회원가족들은 해인사 소리길 입구에서 흥류동 매표소에 이르는 1시간여 거리를 걸으며, 늦가을의 마지막을 맘껏 즐겼다.

해인사 소리길의 절경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해인사 입구에 자리한 대장경테마파크. 이곳은 국내 유일의 대장경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공간으로,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해인사와 함께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대장경 조판 이전부터 경전의 전래와 결집, 천년을 이어왔던 장경판전의 숨겨진 신비한 과학에 이르기까지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조명해놓은 전시관을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둘러본 정기회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실감나는 영상에 절로 감탄이 나왔던 5D 애니메이션 '천년의 마음'을 관람했다. 영상 관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대장경빛소리관 앞 광장에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오숙례, 이현숙 씨의 지도로 몸풀기 체조를 하며 여정의 피곤함을 씻어냈다.

늦기를 짊어진 해만큼이나 아쉬웠던 11월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홍류동 계곡의 붉디 붉었던 단풍만큼 선명한 추억으로 정기회원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12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정란(북구 화명신도시로)	배용귀(남구 석포로)
김종주(금정구 수림로)	오봉세(해운대구 중동2로)
남영하(해운대구 해운대로)	이육자(수영구 광일로)
박민주(동래구 중앙대로)	정석수(남구 황령대로)
배영희(남구 분포로)	한해수(중구 광복중앙로)

● 기존 회원

곽민서(부산진구 복지로)	박종태(연제구 법원북로)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전은경(영도구 동삼서로)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정희주(남구 석포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민영기(해운대구 대천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Happy 크리스마스

지휘 이 건 룬 수석지휘자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BSgem밴드, 후브라스 콰이어, 지나무용단

2016. 12. 17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균일 2,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1 / 공연운영팀 607-3146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들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_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_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Year-end Concert

2016. 12. 20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생상스 | 교향시 「죽음의 무도」 작품40

브루흐 |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85

아르투니안 | 트럼펫 협주곡 내림가장조

생상스 |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28

푸치니 | 오페라 「라보엠」 中

사르토리 | 그대와 함께 떠나라

차이코프스키 |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작품71a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전지영



테너 전병호



바이올린 박소라



비올라 손성준



트럼펫 정현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권 균일 2,000원

문의 607-3101 (홍보팀) 607-3148 (공연운영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 - 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CULTURE

LIFE

December 2016
vol. 300

INVITATION TO THE ARTS

28 프리뷰

34 리뷰

36 프로그램 가이드

54 새로 나온 음반

55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방송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57회 정기공연 사랑 공감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시립극단 객종필 예술감독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작가 오은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제57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12.8(목)-10(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05, 3147

부산시립극단이 올해 들어 마련한 '부산 연극 역사의 힘' 세 번째 무대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대장금' 등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부산출신의 작가 오은희가 부산시립극단의 위촉을 받아 부산을 배경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리적 여건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무대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을숙도가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지난 1970년대 부산의 영도와 을숙도를 배경으로 시대적 아픔과 사랑을 그려낸 음악극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과 배우들의 현란한 춤, 그리고 빠른 무대변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연출을 맡은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객종필은 오랫동안 극단 '하늘개인날' 대표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통해 부산 연극계를 지켜왔다. 지난 1995년 공식 연출데뷔작인 '우리들의 광시곡'으로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객종필은 1999년 연극 '느낌, 극락같은'으로 전국연극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2년에는 연극 '이(爾)로 또다시 전국연극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면서 연출가로 그 이름을 알렸다.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흠칫깜테이를 맞아 주인공 헤르만 강이 40년만에 부산을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모교인 해양대학교를 찾은 헤르만 강은 사랑 고백에 실패하고 풀이 죽어 있는 대학생 동규의 모습에서 20대이던 지난 1970년대 젊었던 자신의 모습과 그 시절 사랑했던 정화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헤르만 강과 헤르만 강이 옛사랑을 만나면 자신과 여자친구인 채경의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동규는 헤르만 강의 과거로 돌아가 1970년대의 열정 가득했던 시절을 되짚어본다. 이번 무대에서

는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부산의 대표적인 배우 전성환이 주인공 헤르만 강 역을 맡아 관객의 인기를 펼친다.

부산시립극단 창단 초기 예술감독위원회 위원으로 부산시립극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전성환은 부산시립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인 연극 '리어왕'을 비롯해 '파우스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세일즈맨의 죽음', '고도를 기다리며' 등 연극 150여 편을 비롯 이운택 감독의 영화 '오구', 김기덕 감독의 '활' 등 영화와 TV드라마, CF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으며, 이해랑 연극상을 비롯해 제13회 놀원 향토문화상(1986), 제15회 한국 연극예술상(1989), 부산시 문화상(1989), 제1회 한국 가족문화상(2000) 등을 수상한 바 있다.

Pre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지휘 이견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온 가족을 위한 음악선물 'Happy Christmas'가 12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2.17(토)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01, 3146

강한 열정과 섬세한 지휘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수석지휘자 이견륜이 지휘하고 자연을 연주하는 재즈밴드 BSgem Band와 금관5중주 '후브라스 콰이어', 피아니스트 이화영선&정소연, 지나발레단,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구명금, 장용균, 최원갑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으로 재미와 즐거움,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첫 무대는 후브라스 콰이어가 꾸미는 경쾌한 관악양상블 무대로, Thomas Graf 'Best Christmas Songs'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캐롤 '징글벨' 연주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Sing for Joy!(헨델 곡), Feliz Navidad(이현철 편곡), A Jolly, Jingling Carol Medley(Greg Gilpin 곡), A La Nanita를 들려준다. 트럼펫 전상윤, 호른 박승훈, 트럼본 김영민, 최민재, 튜바 김기울로 구성된 후브라스 콰이어는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창단된 후 이듬해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초청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악양상블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피아니스트 이화영선, 정소연의 듀오 무대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재즈풍으로 편곡, 들려준다. 부산예술대학 동문인 베이스(리더) 최준호, 보컬 김수정, 기타 강유환, 건반 강민송, 색소폰 하재현, 드럼 이승환, 타악기 조상현으로 구성된 BSgem Band는 이번 무대에서 리더 최준호가 작곡한 창작곡 Carols, Tranquilizer를 들려준다. 재미있는 가사와 경쾌한 리듬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BSgem Band는 그동안 디스코음악을 중심으로 재즈와 일렉트로닉, 하우스뮤직, 알앤비, 힙합, 소울 등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지나발레단의 창작발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이어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캐롤 무대를 선사한다. 종소리 울려라, 실버벨, 울면 안돼,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캐롤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의 안무와 함께 흥겹게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구명금, 장용균, 최원갑의 무대로, 아돌프 아담의 명곡 'O Holy night', 우리에게는 '소나무야'로 널리 알려진 독일민요 '턴넨바움(Tannenbaum)'을 들려준다.

• 지휘/ 이견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 BSgem 밴드, 후브라스 콰이어, 피아니스트 이화영선&정소연, 지나발레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구명금, 장용균, 최원갑

Preview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지휘자 김봉미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7년을 기원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가 12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2.20(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01, 3148

바이올린 전지영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전지영, 테너 전병호, 그리고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박소라(바이올린, 부산대학교 2학년), 손성준(비올라, 동아대학교 3학년), 정현우(트럼펫, 동의대학교 4학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겨여왕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더욱 유명해진,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정신을 대변하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를 시작으로 브루흐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아르투니안 '트럼펫 협주곡 내림가장조',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오 사랑스런 그대', 사르토리 '그대와 함께 떠나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무대에 오르는 차이코프스키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작품 71a'로 저물어가는 한해의 아쉬움을 달랜다.

년과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여성 지휘자로서는 유일하게 지휘봉을 잡아 2012년 그 해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지휘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필하모닉, 시흥시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봉미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음악감독, 헤럴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헝가리 국제지휘콩쿠르에서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다"는 극찬과 함께 여성 최초로 수상해 큰 화제를 모은 지휘자 김봉미는 러시아 성 페테르부르크 국립음대를 거쳐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피아노과에 최고점수로 입학, 디플롬을 받은 뒤, 테트몰트 국립음대에서 독일 정부(DAAD)와 테트몰트시(GFF)의 장학생으로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2003년 동양여성 최초로 바흐 음악의 거장인 헬무트 릴링의 슈투트가르트 바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휘, 2008년 문화관광부 주최 제1회 신진여성문화인상 첫 수상, 201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콩쿠르 여성 최초 수상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보통명사처럼 따라다니는 김봉미는 2011

협연자로 관객과 만나는 소프라노 전지영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드레스덴 오페라 콩쿠르 상임 반주자를 역임하기도 한 전지영은 스페인 테네리페 초청 아카데미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이태리 Accademia di Musica Beniamino Gigli에서 Diploma를 취득했다. 또 다른 협연자인 테너 전병호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디플롬과정, 에센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으며, 독일 도이치오퍼 인터네셔널 오페라 스튜디오와 하겐극장에서 전속 주역가수로 활동했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등 다수 오페라단체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전병호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TIMF양상블과의 협연 외에도 오라토리오 독창자, 솔로이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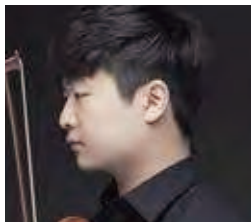
테너 전병호



바이올린 박소라



비올라 손성준



트럼펫 정현우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8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지휘 이정필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격조 있는 우리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8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_구름에 달가듯이'가 12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12.22(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후원회 회장인 한병창의 사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비상임 단원 이소정, 해금주자 전지인, 소프라노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색소포니스트 신유식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연말연시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꾸며진다.

우리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곡된 국악관현악 '비상(이준호 곡)'으로 첫 무대를 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다양한 아리랑을 한데 엮은 창(唱)과 관현악 '아리랑 연곡(황호준 편곡)'을 들려준다. 구아리랑을 시작으로 어랑타령, 해주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신아리랑 등 총 6곡의 아리랑을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 이소정의 노래로 만난다.

사랑을 주제로 한 남녀의 갈등과 이별, 그리고 행복을 애절한 해금선율로 그려낸 해금협주곡 '사랑의 독백(이용탁 곡)'은 해금주자 전지인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아시안게임 100주년 기념행사 및 OCA총회, 제10회 '우리가곡의 날' 기념음악회, 프라이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 축하연주, 노스체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체코 프라하 스페타나 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전지인은 가곡음반 '해금 나리-시들지 않는 선율들'을 발매한 바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성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소프라노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이 민요 '아리아리랑', '경복궁타령', 국악가요 '아름다운 나라'를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A), 최고연주자과정(SO)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재교육원, 부산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윤선기는 독일 Justus-Hermann-Wetzel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독일 Chemnitz 오페라극장 단원, 독일 국영 에이전시 ZAV 소속가수로 있으며 오페라 주역 및 솔로이스트로 다양

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다른 협연자 김창돈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탈리아 로마 A.D.E.M. Diploma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 심포니에타 수석 단원, 부산뮤직클럽 멤버, 블루앙상블 리더, 울산 영재 청소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사)울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더 겸 지휘자, 울산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은 이번 무대에서 각종 방송과 영화, 드라마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우리 귀에도 익숙한 몬티의 '차르다시'와 아르헨티나 탱고를 클래식 음악으로 승화시킨 이른바, '누에보 탱고(Nuevo Tango)'의 대표적인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색소포니스트 신유식과 함께하는 무대로, 대표적인 색소폰 연주곡인 '고잉 홈(Going Home)'과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웅장하게 표현한 '고구려의 혼(홍동기 곡)'으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



‘국민화가’ 이중섭(1916-1956)의 탄생 100년, 작고 60년을 맞아 마련된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이 내년 2월 26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은 지난 6월부터 넉달간 서울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려 2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으면서 국내 작가 개인전으로서는 역대 최대 관람객 수(25만 2466명)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부산전시회에서는 서울 관객들을 감동시켰던 그의 대표작 ‘황소’, ‘길 떠나는 가족’, ‘투게’ 등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유화 작품을 비롯해 서울전시회에서는 관람할 수 없었던 유화 ‘해와 뱀’(1954년), 노래 부르는 이중섭의 사진, 은지화 두 점, 한묵의 ‘초량 풍경’ 등을 만날 수 있다.

2016년 10월 20일(목)~2017년 2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일반 7천원, 초·중·고 4천원

(만 7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 무료,
문화가 있는 날 일반 4천원,
초·중·고교생 2천원)

부산시립미술관

731-7128, www.jungseob.com

일제강점기인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나 정주 오산고등보통학교에서 미국 예일 대학 출신의 서양화가 임용권을 통해 처음 미술을 배운 이중섭은 1930년대 일본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풍을 자랑했던 도쿄의 문화학원에서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받았으며, 일본의 전위 그룹인 자유미술가협회에서 작가활동을 시작했다. 1943년 태평양전쟁의 여파로 귀국, 1945년 문화학원 후배였던 아마모토 마사코와 결혼, 1950년 한국전쟁 중 부산과 제주도로 피란, 1952년 가족과의 이별 등을 겪었으며, 이후 1956년 만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통영, 진주, 서울, 대구, 왜관 등지를 전전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중섭은 말년에 가족과 재회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며, 무연고자로 불행한 생을 마감했다.



길 떠나는 가족 29.5x64.5cm 개인소장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 27x36.4cm 개인소장

이중섭은 서양회화의 형식 위에 동양의 미학을 실현시킨 화가였다. 그는 해부학적 이해와 엄밀한 데생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담아내고자 했다. 서예와 같은 일필휘지의 필력이 유화의 붓 자국에 드러나고, 분청사기와 같은 겹쳐진 재료의 은은한 효과가 작품의 표면에 묻어나온다.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장난스러운 '해학'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고 유려한 선조(線彫)의 아름다움에서 일종의 '격조'가 풍겨 나온다. 스스로 말했듯이 '정직한 화공', '민족의 화가'가 되고자 했던 이중섭의 신념이 작품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중섭은 특히 부산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부산은 이중섭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원산에서 피란와서 제주도로 가기 전 가장 먼저 밟은 남한 땅이자 1952년 7월 가족을 일본으로 떠나보내며 홀로 남은 도시이기도 하다. 1953년 말까지 문현동, 대청동, 범일동, 광복동 등 부산의 피란촌을 전전하며 이중섭은 그의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은지화(銀紙畵·담뱃갑 은박지 위에 긁어 그린 그림) 형식을 완성하고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은 피란지에서의 외로운 삶을 예술을 향한 열정을 통해 이겨나갔다. 당시 피난민촌이 들어섰던 범일동에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건너와 머물렀던 이중섭을 기억하는 이중섭거리와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전시는 식민, 해방, 전쟁을 거치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중섭의 거친 '시공간'을 따라 전개된다. '부산·제주도 피란시기'의 작품을 시작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며 왕성한 창작을 이룬 '통영 시대', 가족을 그리며 수많은 편지와 가족 그림을 남긴 '서울 시대', 마지막으로 경제적 궁핍과 절망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였던 '대구와 서울(정릉) 시대'의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산이라는 장소성을 통해 그 특별한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는 부산 피란시절 이중섭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피란시절 부산의 모습을 돌아켜볼 수 있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란기 '부산'의 미술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볼 수 있다.

50여 곳 소장처로부터 대여한 200여 점의 작품과 100여 점의 자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전시는 이중섭의 대표적인 유화작품 외에도 은지화, 드로잉, 엽서화, 편지화, 유품 및 자료 등이 함께 전시되어 41세라는 짧은 생애와 전란 이후 피란생활 5년여의 한정된 시기에 남겨진 그의 작품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엽서화와 편지화는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 가장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이중섭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신설령 음악평론가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꾸준히 무대에 오르는 작품 중 하나이다. 물론 지금까지 필자가 본 공연은 무대장치와 의상, 연출 등이 있는 오페라였기에 그런 것들을 배제한 '사랑의 묘약'은 그 약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선혜, 사무엘 윤 등 출연진이 정말 보고 싶었고, 가창력이 궁금했던 성악가들이기에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호세 미구엘 에산디의 지휘로 오케스트라 서곡이 연주되고 제1막에서 마을 사람들의 노래를 합창단이 부르는데 연기나 동작이 없는 합창무대가 오히려 오케스트라 서곡에 집중하게 되고 또 합창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리고 등장하는 아디나 역은 소프라노 임선혜였다. 임선혜는 아름다운 외모와 특유의 예쁜 목소리로 아디나 역을 소화해내면서, 청중의 시선과 물입을 이끌어냈고, 뛰어난 연기까지 곁들인 그녀의 열연으로 출연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켰다. 지금까지 임선혜는 바로크, 고전주의 시대 음악 분야에서 그 탁월함을 드러내고 연주해 왔다면 이제 '사랑의 묘약'을 통해 낭만주의 음악으로, 연기력을 겸비한 성악가로, 그 연주 영역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네모리노 역은 테너 김건우가 맡았다. 그는 최근에 여러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네모리노가 되어 노래하며 연기하는 김건우는 미성애다 성량도 풍부하다. 임선혜와 김건우 두 성악가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는 사이 하사관 벨코레 역을 맡은 바리톤 박대웅까지 중후한 음색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무대장치 없는 오페라라는 사실은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약장수 돌카마라 역을 맡은 사무엘 윤이 등장하면서 무대는 좀 더 뜨거워졌다. 원래 돌카마라 역은 '사랑의 묘약'에서 그의 익살로 관중들을 웃게 하고 긴장감을 풀어주는 재미있는 캐릭터다. 사무엘 윤의 돌카마라는 무대를 장악하고 청중을 장악하는 힘이 압도적이었다. 무대장치 없이도 이제 완벽한 오페라를 보는 듯 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자칫 과도해 보일 수 있는 연기조차 그에겐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보인다. 그는 마치 베테랑 연기파 배우가 출연했다고 할 만큼 배역에 완전 몰입한 모습으로 극을 이끌어 나갔다. 오페라에서 연기의 중요함을 보게 되는 부분이다. 무대를 휘젓고 다니며 노래하는 돌카마라의 등장 이후 아디나도, 네모리노도, 벨코레

도 음악과 혼연일체가 되고 모두가 점점 빛나고 있었다. 극은 정점으로 나아가고 김건우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그가 차세대 기대주임을 각인시켰다.

이날 공연을 앞두고 외부에서 온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 합창이 서로 맞춰 볼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터이다. 성악가들의 무대 동선은 어떻게 짜고 익혔으며, 지휘자가 성악가들을 등지고 지휘하는데 호흡은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매끄럽게 흘러갔다. 물론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 오케스트라의 음량이 커서 성악가들의 노래가 묻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페라는 화려한 볼거리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지난 겨울 뉴욕에서 '투란도트'와 '라보엠'을 보고 그 화려한 무대장치에 청중들이 압도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완벽한 오페라 공연을 보는 대신 만만치 않은 입장료를 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 '사랑의 묘약' 공연에서 탁월한 출연진의 열연은 무대장치 없음의 부족함을 상쇄할 만큼 좋은 공연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좋은 출연자들이 좋은 기획을 제대로 빛낸 것이다.

Review

부산시립무용단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 해학으로 날아오른 춤



권옥희 무용평론가

피날레. 어머니 반질고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앉아있던 무수한 색의 나비들. 마치 그 나비들이 화려르, 일제히 무대로 날아든 것 같았다. 춤을 엮은 '창부타령' '꽃타령' '벚노래'가 오래 전 기억을 불러오는 그런 화사한 흥이 넘실거리는 춤의 향연이었다.

부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김용철)의 75회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월 17~18일에 담은 '날과 줄', '늙은 여자'. 김용철의 또 다른 예술 색을 확인한 무대였다.

먼저, '날과 줄'. 세로로 세운 양금, 그 뒤에 겹쳐서 있는 두 남자. 뒤에선 남자가 팔을 뻗어 앞의 남자를 지나 양금을 안으니 땀, 우는 금. 서 있던 양금이 가로로 눕고(연주, 최경철), 뒤쪽에 앉은 장구장단이 불자 두 소리 사이에서 느리게 풀어지는 춤의 선율. 빨강색 양말을 신은(서상재) 탄력 있는 춤의 소리, 검정색 팬티만 입은 네 남자의 춤, 붉은 색 갖 위에 알록달록 부채를 펼쳐 엮은 군무진의 춤이 줄(현)의 이미지-환상을 생산하고 인간적 시간을 토막낸다.

무대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붉은색의 검. 줄에 달려있던 검의 끝이 바닥에 닿으니 흔들, 중심을 잃는다. 균형이란 미세한 흔들림에 대한 다

른 이름이기도. 검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형식을 지니는 어떤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성의 몸의 법칙을 따른 것일 터. 몸으로 검을 감싸기에는 그 검에 찢리기에, 검의 몸을 조각내어 정점으로 치달는 춤에 흡수시킨 것으로 읽히는, 감각적인 무대였다.

송파산대놀이의 '미알할미'를 재해석한 '늙은 여자'. 할멈(이성원), 영감(장영진), 기생(장래훈), 세 명의 무용수가 작품의 왜곡된 공간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작품의 본래 얼굴(해학)을 이들이 찾은 것. 탁월한 캐스팅이었다. 특히 젊은 기생역에 (늙은)장래훈의 배치는 절묘했다.

무대를 질주하는 연극배우들의 대사에서 상징과 비유들이, 그것들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춤언어의 딜레마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연극적 언어의 딜레마는 춤 해석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해석의 대상이 춤이건 문화이건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해석을 요구하는 지점도 바로 이 어떤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문화의 맥락과 우리춤의 속살에서 아우라를 지니지만 그만큼 그 맥락과 춤의 속살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춤으로 해석해내는 것 또한 안무자의 일이다. 서사적 골

격과 춤의 구체성을 잘 꿰고 있는 안무자가 남자무용수들에게 여장을 시킨 것이 그 예이다. 오역할 필요가 없는, 표현을 넘어선 춤,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춤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무용수들만으로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었던 서사에 느닷없이 끼어드는 연극배우의 과한 대사가 무대를 다소 어지럽게 장식한 아쉬움과 그것을 보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그 위에 겹쳐진 장래훈과 이성훈, 장영진의 능청스런 춤 연기가 마치 견고하게 수선된 도자기의 그것과도 같은, 또 다르게 단단한 아름다움이 있는 무대였다. 위트와 해학에 흥을 병치한 재치 있는 구성이었다.

예술감독이란 자리는 매 순간 독창적인 의지를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다른 춤의 발상은 언제나 내린 막으로부터 시작한다. 생존과 춤 창작 실천의 궁리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시선과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 내부적이며 외부적인 시선은 현실의 요지부동함을 철저히 의식하는 순간 벌써 그 장벽을 트고 나갈 것이다. 응원한다.

소프라노 박연희 독창회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유예술기획 010-9025-2012

...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박연희 독창회.

고태국성악콩쿠르 1등, 동서대성악콩쿠르 1등, 경원대성악콩쿠르 2등, 밀라노 Rotary club San siro 가곡콩쿠르 1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는 박연희는 현재 서울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줄리오 체자레' 중 '나의 운명에 울리라'
슈만/너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슈베르트/미농의 노래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빨리 와요 기쁨의 순간이여'

드뷔시/로망스

김성태/동심초 등 수록

• 특별출연/테너 김상진

• 피아노/김은정

이중희 대금 연주회

대금산조, 처음을 보다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중희 010-4558-0543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석사 및 동 대학교 문화예술영상매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국악 연주단 미토리 대표로 있는 대금주자 이중희의 첫 독주회.

또 다른 시작의 날갯짓을 위해 대금을 잡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연주자로서의 책임감, 사명감을 대금 연주와 함께 이야기로 풀어낸다.

[프로그램]

경기대풍류

경기민요 '긴아리랑, 아리랑,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태평가'

판소리 '심청가' 중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박종기제 대금산조

• 사회/김수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V

'독일 음악 여행 II'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마지막 무대 '독일 음악 여행 II'.

현재 중국 우한음악원(WHCM)동방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조성화가 지휘하고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수,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재혁, 서귀포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백민정의 협연,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악성 베토벤을 비롯해 독일 낭만 오페라를 정립한 '독일 가극의 아버지' 베버,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 독일 가극의 기초를 세운 '가극의 왕' 슈베르트 등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16 부산오페라 WEEK

베네치아 라 페니체 국립극장·파르마 왕립극장 공동제작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4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S석 18만원, A석 13만원, B석 8만

C석 5만원, D석 3만원

문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



올해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오페라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솔 오페라단이 기획하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살아있는 전설 라 페니체 국립극장과 베르디의 숨결이 남아있는 파르마 왕립극장이 공동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세 기사들의 삶을 소재로 한 스페인의 동명희곡을 바탕으로 한 '일 트로바토레'는 15세기 초 스페인의 비스케이아 아라곤 지방을 무대로 황포스러운 영주의 박해를 받는 집시여인의 처절한 복수와 함께 영주의 아름다운 시녀와 트로바토레(음유시인)의 사랑을 다룬 사랑과 복수의 비극적 드라마이다.

• 지휘/잔루카 마르티네티

• 연출/로렌조 마리아니

한얼악회 제10회 정기연주회

낙조청강에 배를 띄우고...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얼국악회 010-4503-1175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있는 채수만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결성된 국악동호회 '한얼악회'의 10번째 정기주회.

창단 후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얼악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 무대, 오사카 국제민족음악제, 창원 성산아트홀 개막 연주 등 각종 무대에서 우리 음악 사랑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국악에서부터 민요, 영화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대금제주 '해탄 상령산(上靈山)'

대금독주 '긴아리'

대금제주 '강백천류 대금산조'

가야금/이중주 '출강' 등 수록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음악회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핀커스 주커만

일 시 |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8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



일본 최초의 교향악단이자 세계적인 명성의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올해 10월, 20대의 나이에 도쿄 필 수석지휘자로 임명되면서 화제가 된 안드레아 바티스토니 (Andrea Battistoni)가 지휘하고 그 이름만으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교육자인 핀커스 주커만(Pinchas Zukerman)이 부산관객과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을 시작으로 브루흐의 대표적이자 낭만적인 선율의 매력과 화려한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거침없는 관현악의 울림과 낭만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으로 관객들을 감동의 세계로 이끈다.

페스티보 클라리넷 콰이어 그리고 페스티보 플룻 콰이어 두 개의 연주회, 그 두 번째 이야기

일 시 |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페스티보 콰이어 010-2561-6047



이태리어로 '축제기분'이라는 뜻을 지닌 페스티보 클라리넷 콰이어와 페스티보 플룻 콰이어가 함께 하는 조인트 무대. 부산의 대표적인 클라리넷 앙상블 단체인 페스티보 클라리넷 콰이어는 지난 2001년 3월 전문 연주자에서부터 전공자,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클래식, 재즈, 팝, 민요, 가요 등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레퍼토리로 클라리넷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아마추어 연주자들과 전문 연주자들로 결성된 페스티보 플룻 콰이어는 음악을 통해 축제와 같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디지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음악을 통한 아날로그적인 힐링을 선사하고자 꾸준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협연/이국희(색소폰), 박준제(트럼펫)

2016 부산솔리스트앙상블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부산일보 461-4296

부산, 경남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4명이 들려주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 2016년 무대. 매년 12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무대에 서는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그동안 가곡, 오페라합창곡에서부터 성가, 민요에 이르기까지 남성 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울산시립합창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민민기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삶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무대로, 한국가곡과 외국가곡에서부터 오페라 합창곡, 종교 합창곡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지휘/민민기
- 피아노/최진현, 박소미
- 찬조출연/은기비어린이중창단



우리는행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앙상블 '더날개' 창단연주회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사)선민사회복지회 010-5230-4920, cafe.daum.net/thenalgae1004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단된 발달장애인 앙상블 '더날개' 창단 연주회. 영남 최초의 발달장애인 앙상블팀인 '더날개'는 지난 9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지역 음악가들의 재능기부로 정기연습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단원들의 연주무대와 함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현 교수와 '더날개' 클라리넷 단원과 중주, 파랑새복지관 원오한 관장의 성악무대, '더날개' 음악감독인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백재진 교수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류재환의 바이올린, 오보에 중주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다원국악관현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다원국악관현악단 010-6368-5133

지난 2013년 국악의 저변확대와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다원국악관현악단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 다원국악관현악단은 한국인의 정서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소리와 테크니컬한 연주를 바탕으로 국악의 저변확대에 노력해왔다.

- 사회/김언지
- 지휘/한영길
- 협연/부산가야금병창단(단장/김현주), 안룡철(장쇄납), 임진희(피리), 곽은진, 김재은(소리), 김명진(소), 이수진(장구), 김인균(장), 최종택(제금), 신유식(색소폰), 우담바라합창단, 대연혁신태권도시범단
- 객원출연/손한별(소금), 곽영일(드럼), 강메라(건반)



수영구노인복지관 제7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수영구노인복지관 759-6070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만들기에 앞장서 온 수영구노인복지관이 지난 한 해 운영해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실력을 선보이는 제7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연극반,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스포츠춤댄스, 실버요가, 라인댄스A/B, 우리춤체조, 단학기체조, 하모니카A/B, 오카리나 등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12개 공연팀의 무대와 사진반이 준비하는 사진전이 펼쳐진다.



프리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프리바이올린 오케스트라 010-6773-6772, freeviolin314(카카오톡)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결성한 프리바이올린 오케스트라(Free Violin Orchestra)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12월 결성된 후 현재 6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프리바이올린 오케스트라는 2015년 3월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청소년 음악회, 찾아가는 재능기부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작은별, 개선의 합창, 위풍당당행진곡, 징글벨, Rain Drops, 사랑은, Canon in D, 여인의 향기, You raise me up, 헝가리 무곡 제5번, 해적, 붉은 노을, 리베레 탕고

- 단장/장은세
- 음악감독/이주은

2016 로얄비츠 페스티벌 컴퍼티션&힙합 콘서트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1: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 ㈜퍼니웍스 02-3397-7180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인 '힙합'을 주제로 한 2016 로얄비츠 페스티벌.

넘치는 끼와 재능을 지닌 예비스타들을 위한 오디션 무대인 1부 컴퍼티션에 이어 2부에서는 속사포 래퍼계의 1인자 아웃사이드, 소미더머니5 3위 우승자 랩퍼 슈퍼비, 소미더머니5 출신 실력파 랩퍼 면도, 언프리티랩스타 히로인 타이미, 힙합씬의 진정한 실력자 사포, 아시아 최고의 비트박스 듀오 프리마데, 소미더머니 출신 독보적 랩퍼 뉴챔프 등 우리나라 대표 힙합 뮤지션들이 출연, 컴퍼티션 지원자들 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예선을 거친 15개팀이 출전하는 1부 컴퍼티션에서는 댄스, 랩, 보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연을 펼친 후 대상 수상자는 2부 콘서트 무대에 선다.

- 1부 컴퍼티션(오후 1:00~오후 4:00)
- 2부 힙합콘서트(오후 6:00~오후 8:00)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일 시 |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 7천원,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A석 3만 3천원
문의 | 문화락 1600-1602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로부터 '매우 시적인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은 재즈피아니스트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적 감성과 뛰어난 테크닉을 갖춘 론 브랜튼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레코딩 세션, 작곡, 편곡, 재즈 클럽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는 단일 브랜드로는 최장기 공연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대표공연으로 국내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론 브랜튼과 함께 색소피니스트 마틴 제이콥스, 드럼주자 웨이언드, 베이스 기타리스트 손 펜들랜드, 재즈 보컬리스트 표진호가 세계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캐롤에서부터 겨울나무, 구두발자국 등 한국의 겨울동요를 재즈선율에 담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김은경 후원회 010-9073-1279



'낭만적인 감수성과 음색을 가진 영리한 연주자',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발성을 지닌 클라리네티스트'라는 호평을 받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은경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Diplom, KA),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AD)를 졸업한 김은경은 서울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서울시 청소년교향악단, 부천시 청소년교향악단 수석단원, 서울클라리넷 앙상블 멤버로 활동해 왔으며, 해외에서도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며 탄탄한 실력을 다져왔다. 특히 2008년에는 독일 시스템 클라리넷만이 연주되는 보수적인 독일 관현악계에서 프렌치시스템 악기로는 처음으로 A급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Duisburg Philharmonie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은경은 현재 국민대학교, 수원대학교, 선화예술학교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ACE(A Clarinet Ensemble)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ACE 010-9328-9037

지난 2010년 부산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로 창단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클라리넷컴퍼니가 2016년 ACE(A Clarinet Ensemble)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마련한 정기연주회.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클라리넷피아니스트 단원인 리더 이원기와 악장 유지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ACE는 그동안 다대포 낙조분수대, 찾아가는 음악회,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등 크고 작은 무대와 부산국제클라리넷페스티벌을 통해 클라리넷의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 연주/유지훈, 이원기, 이소연, 이효주, 임경희, 전다은, 김지훈, 김규현, 박혜진, 이성은, 조아라



안세웅 타악기 독주회

일 시 |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숙희 010-2551-9743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김정우로부터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안세웅이 들려주는 타악 독주회.

울산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안세웅은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 음악수업을 통해 닦은 기량과 음악적 열정을 담아 학구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Paul Creston/마림바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티노 1번, 2번, 3번
Sidney Hodkinson/Kerberos
Iannis Xenakis/Rebonds B
Leight Howard Steven/Rhythmic Caprice 등 수곡
• 반주/이주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01, 3146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온 가족을 위한 음악선물 제147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강한 열정과 섬세한 지휘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수석 지휘자 이건륜이 지휘하고 자연을 연주하는 재즈밴드 BSGem Band와 금관 5중주 '후브라스 콰이어', 피아니스트 이화영선&정소연, 지나발레단,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구명규, 장용근, 최원갑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으로 재미와 즐거움,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고 자연을 연주하는 재즈밴드 BSGem Band와 금관 5중주 '후브라스 콰이어', 피아니스트 이화영선&정소연, 지나발레단,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구명규, 장용근, 최원갑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으로 재미와 즐거움,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BSGem 밴드, 후브라스 콰이어, 피아니스트 이화영선&정소연, 지나발레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구명규, 장용근, 최원갑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 2016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첫 발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을 기념하며 마련하는 '2016 송년음악회'.

연기자 강석우가 사회를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객원지휘자 이영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

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를 비롯해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바리톤 고성현, 테너 전병호, 국악인 김용우, 오정혜, 광주시립합창단이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 출범과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을 노래하는 부산시립극단 창작뮤지컬 '희망의 도시, 부산!'에 이어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한 편의 뮤지컬을 보

듯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녕하세요'가 무대에 오르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로 송년음악회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프로그램]

뮤지컬 '희망의 도시, 부산'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황호준(편곡)/아리랑 연곡, 장타령, 너영니영

창작무용 '안녕하세요'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중 제4악장 '환희의 송가'

• 지휘/이영철 • 사회/강석우

• 출연/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바리톤 고성현, 테너 전병호, 국악인 김용우, 오정혜, 광주시립합창단



제13회 소프라노 구은희와 떠나는 세계가곡·오페라여행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포레아트컴퍼니 010-3512-0099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김천대학교 음악과 겸임 부교수, 포레아트컴퍼니 대표, 열매양상을 대표로 있는 소프라노 구은희와 떠나는 세계가곡·오페라여행.

13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여동생 구은정이 반주를 맡고 현재 아산오페라단 단장으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이수순의 특별출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창원시립교향악단 객원 부수석을 역임한 첼리스트 송연경, 대구기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생인 차세대 유망주 소프라노 류현아의 협연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이태리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음악여행의 배경이 되는 국가의 주요 명소가 영상으로 제공되면서 음악여행의 이해를 돕는다.

메시아합창단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메시아합창단 010-9709-2172

지난 2015년 망미성당, 인락성당, 온천성당, 화명성당 등 20여 분당 성가대원으로 창단한 메시아합창단이 들려주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는 그리스도 탄생부터 수난, 부활 등 일생을 다룬 곡으로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작품이다.

메시아합창단 지휘자이자 화명성당 성가대 지휘자, 부산삼성전기 기업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전희정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태모, 베이스 박상진, 첼발로 연주자 강희선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5년 창단 후 정통 클래식에서 재즈, 모던,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호흡하고 있는 부산M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53곡 전곡을 헨델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준다.



제1회 금동훈 타악연주회 '도전'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금동훈 010-4406-6618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를 졸업하고 현재 금릉빛내음악 이수자, 부산시무형문화재 제23호 부산기장오구구 전수장학생,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사물놀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동훈 타악연주회.

(사)한울림예술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금동훈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기장오구구 중 '초망지자'를 비롯해 동해안무속사물놀이, 경기도당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부산기장오구구 중 '초망지자', 동해안무속사물, 박대성류 아쟁산조, 경기도당, 태평소와 사물놀이

• 출연/김진환(부산기장오구구 전수교), 서한내(부산기장오구구 전수교), 김선희, 문순조(울산시립무용단 단원), 최재근, 김애리, 김현성(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오페라 데뷔 25주년

바리톤 박대용 독창회

일 시 |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양보람 010-3863-3087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용이 오페라 데뷔 25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쥘세배 니콜리 국립음악원, C.E.D.E.M 국제성악 아카데미, 루이지 보케

리니 성악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태리 프란체스코칠리아 성악콩쿠르 우승, 엔나 국제성악콩쿠르 3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 등을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박대용은 그동안 오페라 무대를 중심으로 오라토리오 독창회, 협연자, 솔로리스트 등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크리스마스 캐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은수
- 우정출연/Dong-A Singers
- 연주/부산네오피오케스트라(지휘/홍성택)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원준연 010-5660-3919

지난 2005년 목관앙상블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의 목관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대중적인 음악과 정통 클래식을 오가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기획연주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시즌~Ⅶ, 부산음악협회 '레일 위의 클래식', 부산실내악페스티벌, 금정문화회관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 토요일점, 부산시립미술관 토요라이브,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 '클림', MBC목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플루트/강미경 • 오보에/김미영
- 클라리넷/원준연 • 비순/양희경
- 호른/이민정
- 협연/최낙주(플루트), 김성희(피아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01, 3148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7년을 기원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전지영, 테너 전병호, 그리고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박소라, 손성준, 정현우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저물어가는 한해의 아쉬움을 달랠다. 지휘자 김봉미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유니이티드 필하모닉 음악감독, 헤럴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지휘/김봉미
- 소프라노/전지영 • 테너/전병호
- 바이올린/박소라(부산대학교 2학년)
- 비올라/손성준(동아대학교 3학년)
- 트럼펫/정현우(동의대학교 4학년)

2016 손한별의 음악공방

일 시 |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손한별 010-6645-1564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음악대륙 가이아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금주자 손한별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손한별은 이번 무대에서 대금연주 외에도 한영숙류 살풀이춤과 이매방류 살풀이춤, 심청전, 뱃노래 등 음악과 노래, 춤이 함께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악공이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선조들의 문화를 새롭게 재현한 음악공방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대금/손한별 • 춤/김정경, 정인우
- 해금/김원지 • 아쟁/정선경
- 장구/박정원, 김인균 • 소리/김아름



2016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전화예매시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2016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동부산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인 백원석 교수가 지휘하는 오페라 부산 심포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요 '해후', '동행', '붙임 사랑' 등으로 사랑받았던 가수 최성수와 세계 정상급 팝페라 가수 정세훈, 중국의 유명가수 리곡일의 제자인 가수 리웨이, 맑고 청아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는 소프라노 박현정, 국내 최정상급 테너 이철성, 5세에 피라과이로 이민, 남미에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석우, 중요무형문화제 제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소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음악가들이 출연,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달래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8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겨조 있는 우리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8회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_구름에 달가듯이'.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성희, 비상임 단원 이소정, 해금주자 전지인, 소프라노 윤선기, 바리톤 김창돈,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색소포니스트 신유식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연말연시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꾸며진다.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 사회/한병창(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후원회 회장)

양상블 아리 세 번째 공연 색다른 음악회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양상블 아리 010-6803-3886



지난 2014년 11월 창단 연주회를 가진 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양상블 아리의 세 번째 무대.

피아니스트 강인경, 조은주, 류성경, 바이올리니스트 조나영, 첼리스트 황승희,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 플루티스트 공유현 등 부산의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양상블 아리는 이번 무대에서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우리말 '알이'에서 따온 '아리'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 때문에 앓는다는 의미로, 이 앓음을 통해 음악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생상스/타란텔라
올리버 콜버그/피아노 듀오를 위한 'Three Epigrams'
슈만/피아노 5중주 작품 44 등

- 해설/박시현
- 게스트/이미원(바이올린), 유재형(비올라)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인터넷 신청(concert.pusan.ac.kr, 12/4일까지) 후 추첨을 통해 개별통보
문의 | 부산대학교 510-1296, 1299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가 대학 구성원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대학 발전에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의 사랑과 감사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기념음악회.

전문연주자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학과 교수 및 강사, 음악학과 오케스트라, 음악학과 동문 오케스트라, 음악학과 합창단, 음악학과 동문합창단, 부산시민합창단, 효원 미래내합창단 등 부산대학교 구성원들과 가수 양희은, 부산대학교 음악동아리 '썬물'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총감독, 오케스트라 악장/김동욱(음악학과 학과장)
- 예술기획, 총지휘/박성완
- 오케스트라 지휘/김봉미, 서희태
- 스페셜 초청가수/양희은, 부산대학교 음악동아리 '썬물'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극동아리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 '펼쳐지는 태극기'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4:00,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304-1381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연극동아리 '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마련하는 청소년 연극 '펼쳐지는 태극기'. 정규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만 저마다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기쁘고 협력 예술단체인 극단 디아코노스의 지도로 무대에 올리는 연극 '펼쳐지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소년 미나가 시간여행을 통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5년 과거로 돌아가 유관순 열사와 친구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센텀합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 시 |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단체 및 학생)

문의 | 센텀합창단 010-3136-7798



지난 2007년 2월 창단된 후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부산 최고의 여성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센텀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창단 후 매년 부산합창제를 비롯 소양보육원 기금마련 콘서트, 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연주활동과 지역 내 음악봉사 활동을 꾸준히 가져온 센텀합창단은 올해 열린 '제11회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에서 베토벤의 '코랄환타지'를 연주한 바 있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오페라 합창이라는 다소 어려운 장르에 도전하게 된 센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들려준다.

- 지휘/이철성
- 특별출연/UM 챔버오케스트라, 센텀남성합창단, 중앙성당 그레고리오성가대, 아바발레스 여성합창단

유한승 재즈 기타 콘서트

일 시 |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유한승 010-4938-9618



뉴욕 파이브타운스칼리지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조교수로 있는 재즈기타리스트 유한승 재즈콘서트.

유한승은 그동안 재즈 기타 콘서트를 비롯해 유한승 트리오의 'Falling in Jazz', 'Summer Jazz Concert in Haeunde', 'All About Jazz', 대구국제재즈축제, 이상근현대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재즈기타를 위한 코드론 워크북, Jazz Licks for Improvisation 등을 출간한 바 있다.

1부에서는 기타와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재즈트리오, 2부에서는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의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지는 기타 연주를 들려준다.

- 연주/유한승(기타), 홍경성(베이스), 홍성률(드럼), 안우성(트럼펫), 심규성(트럼본), 김승모(색소폰)

UKO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UKO오케스트라 610-0900, 010-3863-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아나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전문 연주자 120여 명으로 구성된 U.K.O.는 그동안 가진 음악회 수익금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해왔다.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IPB 음악감독이자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 테너 김성진, 소프라노 박현정이 출연,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해온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본다.

- 지휘/이동신
- 첼로/양욱진
- 테너/김성진
- 소프라노/박현정

2016 송년자선 사랑나눔음악회 The Christmas Cantata '성탄의 축복'

일 시 |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더행복한티켓 3만원, 1만원
문의 | U FOUNDATION 010-3513-4410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U FOUNDATION'에서 마련하는 제2회 사랑나눔음악회.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보내며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정중앙교회, 새삼교회, 제4영도교회 등 부산지역 교회연합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합창으로 화합과 나눔의 정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탈북 청년들의 장학 기금과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난방비 기금으로 쓰여진다.

Arioso 노래하듯이

일 시 |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전하라 010-4663-8117

...
시민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가기 위해 전문음악인들로 창단된 '아리오조(Arioso)'의 4 번째 정기연주회.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듯이'라는 뜻을 지닌 '아리오조'는 지난해 2월 첫 번째 정기연주회 '자선음악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연극 형식의 클래식 무대를, 하반기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만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OST, 뮤지컬 넘버, 성가곡 등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강은지
- 메조소프라노/전하라
- 테너/김보우, 안진혁
- 바리톤/곽동민
- 피아노/류희은, 김효정
- 사회/이주현
- 게스트/나리(바이올린), 황선지(첼로), 오페라 컴퍼니



(재)부산문화회관 출범 기념 2016 제야음악회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부산시민들과 함께 2016년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7년 새해를 맞는 '2016 제야음악회'.

제야음악회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문화회관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는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왔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올해 5월 강남심포니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휘자 성기선이 지휘하고 전 부산MBC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을 비롯해 지난해 2015 이탈리아 국제 타악기 콩쿠르 마림바 부문에서 1위 수상한 강윤서, 올해 제5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시상식에서 '아랑가'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뮤지컬배우 강필석, 2010년 국민 뮤지컬 '맘마미아' 오디션

에 합격하면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올해 '소피'역으로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친 뮤지컬배우 박지연,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 대표 여성 싱어송라이터 박기영,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출연해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새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2부 시작 전 휴식시간 로비에서는 지난 2013년 미국 전통 재즈 빅밴드로 창단한 빅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와인, 다과를 즐기며 2017년을 기원하는 소망엽서 적기 이벤트가, 공연 후에는 야외에서 2017년 새해를 맞는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부르흐/콜 니드리이 작품 47

사라사테/피고이네르바이젠

로로이 앤더슨/나팔수의 휴일 등 수곡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2월 3일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공연

[프로그램]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출연/김현주, 정주연, 임성희)

남도민요 '성주풀이'(출연/조정례, 김명숙, 신수방, 권진희)

진도북춤(출연/박정옥, 김미정, 김부송)

경기민요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출연/김강남, 정순득, 장복심, 이은경, 백은자, 임신엽, 박성희, 강재인, 서현자, 박민선, 노예주)

설장구(출연/배현숙)

세월애(작사, 작곡, 노래, 대금/송재운)

• 사회/김명숙(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무국장)

• 대금/송재운

• 장구/김영애

12월 10일 부산시립무용단 '춤의 회화전-춤추는 남자'



[프로그램]

승무(출연/전현우)

처용무(출연/장래훈, 박상용, 강모세, 김요호, 황동하)

남무(출연/이성원, 허태성, 장영진)

춘향가(출연/장래훈, 오숙례)

목포의 눈물(출연/남도욱, 이현숙)

소고춤(출연/허태성, 최의욱)

설장고(출연/김요호)

진도북춤(출연/박상용, 강모세, 최의욱, 장영진, 황동하)

• 해설/이현숙

12월 17일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살풀이춤(출연/윤정미)

소고춤(출연/강수나, 이진주, 최혜리)

진주교방거거춤(출연/남선주)

이리몽춤(출연/강수나, 신윤경, 이진주, 최우정, 최혜리)

진도북춤(출연/윤정미, 신영화, 김영희)

부채춤(출연/강수나, 이진주, 최우정, 최혜리, 신윤경)

부산시민대동춤(출연/전 출연진)

• 기획, 사회/문자영

12월 24일 TDC양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실내악을 위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피아노 5중주를 위한 린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 피아노/고영주

• 제1바이올린/금성민

• 제2바이올린/한유진

• 비올라/유정주

• 첼로/이지수

• 해설, 편곡/박주희

12월 31일 The 多樂 공연

[프로그램]

비나리(풀이/이수진, 악사/정재욱, 박성호, 전주영, 류재철, 차영우)

모듬북(모듬북/김경자, 문정숙, 구진희, 김유경)

김병선류 설장구(장구/류재철, 정재욱, 이수진, 차영우)

창작판소리 '슈퍼맨 씨름대회 출전기(판소리/정다은, 고수/이수진)

판굿(출연/이수진, 정재욱, 박성호, 전주영, 류재철, 차영우, 김성겸)

2016 부산오페라 WEEK
뉴아시아오페라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송년오페라 갈라콘서트

The Last Propose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뉴아시아오페라단 1600-6867



그란데조이아뮤직 예술 감독, 월드엔젤피스예술 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손민수가 지휘하고 KNN 정희정 아나운서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류진교, 전지영, 왕기현, 김아름, 메조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강훈, 장지현, 문한솔, 바리톤 김기환, 베이스 권영준 등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들과 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명작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유쾌한 국악 한마당
남상일 100분쇼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4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남상일의 국악 한마당. 뛰어난 소리 실력 뿐만 아니라 재치있는 입담으로 방송가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남상일은 2012년 ‘KBS 국악대상’,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국악한마당’ 등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편곡, 관객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국악관련학과 민요, 창극, 무용, 타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명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제46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정기연주회
2016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천원(만 7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마련해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16년을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2016 송년음악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양경아,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성혜, 국립오페라단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전병호의 협연으로, 저물어가는 2016년을 아쉬워하고 새로운 2017년을 맞는 희망을 다채로운 연주곡에 담아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악장), 김성혜(소프라노), 전병호(테너)



원기둥 국악예술단 정기연주회
삼설기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문 의 | 원기둥 국악예술단 010-4145-4025



지난 2000년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재학생들로 결성된 원기둥 국악예술단의 정기연주회. 현재는 단원 모두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 전문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조선조 후기 작자미상의 국문소설인 ‘삼설기(三說記)’를 소재로 삼의 흥과 멋, 풍취를 담아 이야기가 있는 국악 공연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 송서율창, 모듬북, 선비춤, 경기민요, 살풀이, 판소리, 바라선무도, 삼도풍물
- 총 연출/정명선
- 출연/신단공(회장), 정종원, 왕순근, 김신영, 김인숙, 최홍영, 고미명, 노양희, 신종숙, 박현옥, 이외숙, 문성숙, 기미수, 현영선, 이윤미, 김순이
- 특별출연/박범식(식), 박동규(장구)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꿈을 노래하자

일 시 |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
010-8517-4991, 010-3839-1084



금정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결성된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꿈을 노래하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비반, 연주반의 무대에 이어 남성성악양상을 해피양상들과 금정구여성합창단의 특별무대도 선보인다.

- 연주반 지휘/이홍길
- 예비반 지휘/안선애
- 피아노/정은경
- 사회/문혜진
- 특별출연/해피양상블, 금정구여성합창단

박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Images’

일 시 | 12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 최고교육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 최고실내악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현정 독주회.

한국일보콩쿠르 특상, 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1등 수상에 이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4회 Albert Roussel 피아노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박현정은 경성대학교, 동이대학교,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드뷔시/이미지 I
- 쇼팽/판타지 비단조
- 슈만/카니발

朴君之雜-Park's Story

일 시 |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박정희 010-2610-6931



지난 1992년 창단 후 지역의 전통 문화를 찾아 새로운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남산놀이마당 단원으로서 묵묵히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박정희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무대, 박정희는 이번 무대에서 갖 대학을 졸업하고 '똥따라'로 살아온 지난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등 지난 20년의 문화 판에서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고 찾는 시간을 갖는다.

2016 부산오페라 WEEK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20주년 기념 라 트라비아타 인 콘서트

일 시 |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문의 |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이탈리아 스페레토 스페리멘탈레극장 상임지휘자, 페루지아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카를로 팔레스키가 지휘하고 코리아콥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로 평가받으며 유럽 본토에서 인정받은, 주인공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박현주를 비롯해 '젊은 시절의 도밍고'를 연상케하는 목소리라는 평을 받은 테너 김충희, '동양의 피에로 카푸칠리'로 불리는 바리톤 석상근,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경임, 소프라노 신영정, 테너 박의준, 베이스 유지훈, 박동석, 길은배, 테너 서강천, 바리톤 홍현준이 출연, 불같은 사랑과 비극적 운명을 노래한다.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기획공연 미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다우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70-8265-0776, 010-4614-5880



지난 2012년 'Life in Art'를 모두로,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행복 찾기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주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온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이 마련하는 미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주옥같은 아리아와 중창 위주의 구성을 통해 대중들이 오페라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무대에서는 3D 영상을 활용한 입체적 무대와 왕기현(비올레타), 장지현(알프레도), 김기현(제르몽) 등 3인의 주역가수와 로이멘양상블(피아노 김경미, 바이올린 금성빈, 플루트 유주영, 첼로 김혜지)이 하나 되어 펼쳐는 환상의 하모니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음악감독/김경미
- 총 감독/박준준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균일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일 피아니스트 정성흔과 Quartet-The Soloists '로맨틱 피아노 앙상블의 밤'



미국 줄리어드 음대, 뉴욕 주립대학원 Artist Diploma 과정을 전액 장학학생으로 졸업하고 현재 (사)더 솔로리스트 피아니스트 및 음악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정성흔과 (사)더 솔로리스트의 젊고 재능있는 멤버들로 학구적이면서도 현악 4중주 특유의 화합과 앙상블을 잘 보여준다는 호평을 듣고 있는 현악4중주 'Quartet-The Soloists'의 무대.

[프로그램]
슈만/피아노4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7
브람스/피아노5중주 바단조 작품 34
• 피아노/정성흔
• 바이올린/조무중, 서은아
• 비올라/김민경 • 첼로/오현진

14일 김유리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라이프치히 음악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리 독주회, 독일 유학 당시 실내악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넓혀온 김유리는 이후 카타르 필하모니의 제2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귀국, 다양한 무대에서 끊임없이 청중들을 만나고 있다. 김유리는 현재 2016년 울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진예술가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낭만적 소품 폴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119
엘가/바이올린 소나타 내림마단조 작품 82
• 피아노/하승경

21일 앙상블 라이덴사프트(Leidenschaft) 제3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전승민,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장에지,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손은혜, 비올리니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서성은으로 구성된 앙상블 라이덴사



프트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의 삶과 작품세계를 해설과 함께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클라라 슈만/피아노트리오 사단조 작품 17
브람스/클라리넷5중주

나단조 작품 115
로베르트 슈만/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28일 일마앙상블 여섯 번째 콘서트 '겨울, 따뜻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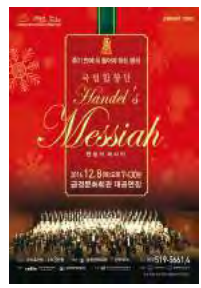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안은탁, 허세경, 피아니스트 윤민영, 하승경, 첼리스트 김나래, 소프라노 박나리,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비올리니스트 김가민으로 구성된 일마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박경규/그대 그리움 로저 쾰터/셰익스피어의 3개의 노래 메노티/바이올린과 피아노, 클라리넷을 위한 트리오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가장조 작품 81 등

국립합창단 '헨델의 메시아'

일 시 |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4



국내 최정상급의 합창단인 국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최고의 무대 '헨델의 메시아'. 베토벤 '합창 교향곡'과 더불어 송년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헨델의 '메시아'는 헨델이 오페라 공연에 실패한 후, 종교적 감동과 믿음의 바탕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1743년 런던 공연에 참석한 영국 국왕 조지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 몹시 감동하여 기립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대목에서는 전원이 기립하는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구천이 이끄는 국립합창단과 소프라노 김영미, 알토 백재은, 테너 김기찬, 베이스 박준혁 그리고 코리아 COOP 오케스트라의 울림이 함께 어우러져 서정적이면서 웅장한 '메시아'의 감동을 선사한다.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Modernism

일 시 |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율예술기획 010-9025-2012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교로 재학 중 도미, 신시내티 음악대학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더 블로섬' 멤버, 부산우드윈드스사이어티 대표, 율예술기획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2014년 귀국 후 부산과 서울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부산과 서울, 경남지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윤희는 현재 경남예술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연세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게리 쇼커, 니콜라이 카푸스틴, 쇼스타코비치, 앙드레 졸리베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정지윤 • 바이올린/한규현 • 첼로/김나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완벽한 화음으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8세부터 15세 사이 총 100여 명의 소년들로 구성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지난 1971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매년 전석 매진의 경이로운 흥행기록을 이어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음악적 기량과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주는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전통적인 색채가 두드러지는 세계 각국의 민요,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크로스오버, 크리스마스 캐럴 모음곡 등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만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정준수 첼로 리사이틀 'Harmony'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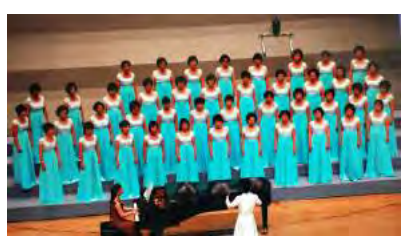
연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신포니에타 초빙수석, 대구 울림 챔버 리더, 부산 솔로이스츠 앙상블, 첼리스트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 독주회. 창원, 대전, 포항, 울산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 대구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 대구 수성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 정준수는 그동안 서울, 춘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독주자로서 뿐 아니라 실내악 앙상블의 매력을 알리는 데 많은 열정을 쏟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오윤복, 정준수를 주축으로 김기량, 김무늬, 배성아, 신정성, 이민지, 오현진, 조혜리 등 차세대 첼리스트 7명으로 구성된 첼로앙상블 'Die Cellisten 8'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행복한 음악회

일 시 |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흥법사 청솔합창단 010-3565-7685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과 흥법사 청솔합창단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아 마련하는 '행복한 음악회'.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은 지난 1995년 창단된 후 세계합창제에서 은상, 부산불교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연주 및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가져왔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합창단인 흥법사 청솔합창단은 지난 2006년 창단된 후 창단음악회와 봉축음악회,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볼러서 좋고, 들어서 좋은 찬불가와 가곡,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연화
- 반주/조민정, 김태윤



동래문화회관 송년음악회 테너 박기천과 함께하는 '송년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유럽에서 지난 30년간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세계적 명성을 쌓은 서울장신대학교 박기천 교수와 함께하는 동래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송년 가곡과 아리아의 밤'. 부산대학교 김충희 교수, 드림문화예술 단장 장진규와의 3테너 무대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드림문화예술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박현진, 왕기현, 그리고 바리톤 윤용원이 우정 출연,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최미란 가야금 독주회 '絃上養心'

일 시 |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금당문화회 010-4568-3766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부산가야금연주단 악장, (사)한국가야금연주자협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최미란 독주회.

제23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상(대통령상), 제31회 난계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금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최미란은 울산시립무용단 국악연주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현악취타(가야금/최미란, 거문고/권은영)

김병호류 가야금산조(가야금/최미란, 장구/박환영)

• 해설/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 장구/박환영(부산대학교 교수)

• 거문고/권은영(부산대학교 부교수)

(사)민족음악원부산지회 하울사물놀이

13주년 정기공연

송구영신 '축원'

일 시 |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하울사물놀이 010-9124-8623



사물놀이 창시자인 이광수 선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민족음악원 부산지회 하울사물놀이 정기공연.

지난 2004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알려온 하울사물놀이는 이번 무대에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송구영신-축원' 무대를 선보인다. 하울사물놀이 김정용 단장의 소리로 들려주는, 여러 액살을 물리치고 순조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비나리'를 시작으로 삼도설장구, 삼도사물, 사물놀이의 꽃 '판굿'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 출연/김정용, 최숙임, 우영길, 손웅기, 조대근, 김민수, 임현서 외 민족음악원 단원, 하울사물놀이 회원

맛있는 토크, 달콤한 음악

공연장로의 외식 콘서트

일 시 |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선착순 무료

문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663-4918, 010-4301-1341



경성대학교 음악학부가 음악을 매개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을 꾀하고 서로의 감성과 추억을 나누며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공연장로의 외식 콘서트'.

'걱정하지 마라', '신호등처럼' 등을 출간한 SNS 시인 글배우의 오프닝 강연 '가족과 사랑'을 시작으로, TV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 양희은 편 '포차 김광석' 출연으로 화제가 된 어쿠스틱 밴드 '추억'과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재학생들이 부모, 자식 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연주를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사전 신청된 사연을 통해 청춘, 가족을 테마로 한 세대별 음악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2016년 명품 음악시리즈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크리스마스를 만나다

일 시 |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커피 제외)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음악과 미술,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크리스마스를 만나다'.

영국 런던에서 도슨트로 활동 중인 콘서트 마스터 윤상진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브리튼 등에 소장되어 있는 크리스마스의 경건함이 물씬 풍기는 다수의 명화들을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환란,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 비올리스트 최하람, 첼리스트 강찬욱으로 구성된 '양상블 클래식'의 연주로 소프라노 김윤지, 테너 임지성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비롯해 웨스트엔드 크리스마스 시즌의 다양한 뮤지컬 곡 '켓츠' 중 '메모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등을 들려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돋을 예정이다.

옛것을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전환(moving dimension)

제4회 조윤경 해금 독주회

일 시 |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윤경 010-8700-5465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 중요무형문화제 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금주자 조윤경의 네 번째 독주회.

지난 2009년 제1회 독주회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시작으로 2011년 제2회 독주회 '서용석류 해금산조', 2014년 제3회 독주회 '김영재류 해금산조' 등 해금산조로 꾸며졌던 독주회 마지막 무대로, 담백하면서도 유연한 맛을 지닌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한범수류 해금산조(해금/조윤경, 장구/이영섭)

古樂 봉장취와 시나위(해금/조윤경, 장구/이영섭,

타악/최재근, 가야금/김현승, 대금/허유진, 피리/이중철)

체코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 내한공연

일 시 |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4만원, 2층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지난 1982년 창단된 체코의 대표적인 소년합창단인 보니푸에리 부산무대.

라틴어로 '착한 소년들'이라는 뜻을 지닌 보니푸에리는 그동안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3,000회 이상 무대에 올랐으며,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 그래미상 수상자인 바비 맥퍼린과의 협연으로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보니푸에리는 이탈리아 판테온에서 열린 로마 교황청과 체코 정부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유럽 정상 소년합창단으로 우뚝 섰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베 마리아', '할렐루야' 등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된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동유럽 민속음악을 들려주며, 마지막 3부 무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다가오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22회 프롬나드 콘서트 ‘하이트 크리스마스’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12월 무대.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 협연/황지원(바이올린)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스트라이허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마련하는 살롱음악회 12월 무대 ‘스트라이허 앙상블 연주회’, ‘현악기 연주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트라이허 앙상블은 지난 2009년 창단 후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 봉사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기존 현악4중주에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구성, 보다 풍성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 바이올린/남가영, 조우태
- 비올라/김민경 • 첼로/이강수
- 더블베이스/박예송
- 피아노/이수민 • 해설/고민지



BMI 뮤직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BMI 010-3592-5697



피아니스트 최은주를 대표로 부산 음악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BMI(브라운 뮤직연구소)가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음악인으로 한걸음씩 성장하며 진정한 음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BMI 제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기량과 감성을 펼쳐는 무대로, 송년에 어울리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도교수/최은주
- 출연/한예정, 정주영, 강남혁, 진우성, 이윤희, 송민영, 홍아연, 이정은, 이현진, 고정윤

2016 송년 재즈 페스티벌

일 시 | 12월 28일-30일 수-금요일 오후 8:00,
31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S석, A석에 한해 2개 공연 패키지 20%, 3개 공연 패키지 30% 할인, 4개 공연 패키지 40% 할인)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2016년 송년의 아쉬움을 아름다운 재즈 선율로 달래는 영화의전당 ‘2016 송년 재즈 페스티벌’,
28일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피아노 타테이시 카즈미, 콘트라베이스 사토 시노부, 드럼 스텔라 마오 등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일본의 피아노 재즈 트리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무대. 지난 2010년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재즈로 편곡, 연주한 앨범들이 국내외에서 크게 히트하며 주목받기 시작한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무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내한공연에서 5년 연속 매진기록을 세우는 등 명실상부 한국인이 사랑하는 재즈 트리오로 자리매김했다.

29일 JK김동욱-그 남자의 겨울이야기
tvN '오페라스타', MBC '나는 가수다', KBS '불후의 명곡'을 통해 가슴을 울리는 진한 감동을 선사해온 JK김동욱의 무대.
30일 웅산-매혹의 재즈파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웅산의 무대. 섬세한 발라드에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모든 장르를 그녀 특유의 감성과 따뜻한 음색, 혼이 담겨있는 그녀만의 독

특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웅산은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앨범상과 노래상 수상에 이어 같은 해 ‘리더스클럽 보컬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31일 3 LIVE : 말로, 전제덕, 박주원
부산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천재적인 하모니카 연주로 감동을 선사하는 하모니카 마스터 전제덕, 환상적인 핑거링으로 화려한 집시 기타 연주를 들려주는 기타리스트 박주원 등 세 명의 뮤지션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이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에서 가진 합동 공연을 통해 ‘한국 재즈의 새 이정표’, ‘명불허전’, ‘영원히 기억할 공연’ 등 극찬과 함께 감동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무대를 선사한 바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2016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2017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마련하는 해운대문화회관 2016 송년음악회. 지휘자 최낙용이 지휘하는 팝인라이프 연주로 소프라노 김아름, 바리톤 정승화, 가수 수진, 최호 등이 출연,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다채로운 곡으로 달래준다.

- 사회/이유진 • 지휘/최낙용
- 연주/팝인라이프
- 소프라노/김아름 • 바리톤/정승화
- 피아노/김효성
- 가수/수진, 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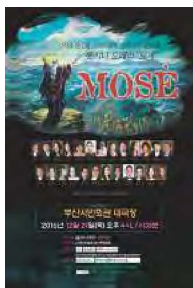


온누리오페라단 롯데시네마 오페라 '모세'

일 시 |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4: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 온누리오페라단 010-3839-1084



지난 2004년 오페라의 대중화와 기독교 문화선교를 위해 창단한 온누리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롯데시네마 오페라 '모세'.

온누리오페라단이 창단 공연으로도 선보였던 롯데시네마 오페라 '모세'는 선지자 모세가 사막의 땅, 이집트에서 노예신분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구약성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827년 3월 26일 프랑스 파리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후 전 세계 주요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 명예단장/인민 • 예술총감독/이홍길
- 지휘/김은실
- 연출/김성경 • 음악코치/안선애
- 합창지휘/고정현, 전경일
- 합창/한국오페라합창단, 나드림미션콰이어
- 피아노/김현정, 정은경

Play 연극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진다'-부산

일 시 | 9월 9일(금)-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12/22-23, 12/29-30 오후 4:00, 7:30, 12/24, 12/31 오후 1:00, 4:00, 7:00, 12/25 오전 11:00, 오후 2:00, 5:00)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넘버가 돋보이는 순수 창작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진다'.

잃어버린 동생을 기다리는 카페 주인 강선과 그곳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빚어내는 사건을 통해 우연이 필연이 되는 과정을 그린 '우연히 행복해진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응원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쾌한 사랑 이야기로 관객의 행복자수를 높여준다.

연극 '셜록홀مز:진실게임'

일 시 | 9월 22일(목)-2017년 1월 1일(일) 오후 5:00, 8: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 소설로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탐정 '셜록 홀مز'의 모험담을 그린 연극. 셜록홀مز에게 수수께끼의 암호의뢰서가 도착하면서 사건 종료 50시간 남은 게임이 시작된다.

사건을 추리할수록 점점 꼬여만 가는 단서들과 용의자들의 관계 속에서 셜록홀مز는 인간의 진심과 진실에 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1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영화, 도서, 드라마,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셜록홀مز:진실게임'은 원작 본연의 추리와 스릴, 서스펜스 속에서도 위트있는 연출과 글과 영상매체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연극 '오백에 삼십'-부산

일 시 | 9월 29일(목)-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24-25 오후 2:00, 5:00, 8: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방에 올라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인들에게, 부푼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사회인들에게 어딘가 익숙하고 설레는 단어,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돈도 없고 뺏도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극.

경상도에서 올라와 포장마차를 하는 허덕이는 인생 '허덕', 베트남에서 왔다가 불같은 사랑에 빠진 '호영미', 뽕질이 고시생 '배변' 등은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만원인 원룸텔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슈퍼 갑질을 일삼는 빌라 주인아줌마의 느닷 없는 사망 소식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범인은 누구인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진다.

뮤지컬 '루나틱'

일 시 | 10월 27일(목)-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4년 소극장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며 창작뮤지컬의 역사를 써내려간 뮤지컬 '루나틱'. 노래와 춤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감성의 소유자인 굿닥터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각자의 아픈 사연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과정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 유쾌하게 펼쳐지는 '루나틱'은 특히 정신과 관장 심리치료 중 하나인 '역할극'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긋난 사랑에서부터 극중 등 장애인물들의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서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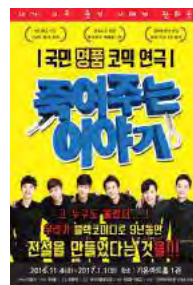
그동안 홍지민, 배성우, 진이한 등 스타 연기자들을 배출하고 소찬휘, 김숙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했던 '루나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으면서 120만 관객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부산

일 시 | 11월 4일(금)-201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휴관, 12/24 오후 2:00, 5:00, 8:00, 12/25 오후 1:00, 4:00, 7:00, 1/1 오후 4: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문화락 1600-1602



지난 2008년 초연 후 지금까지 전국 250만 관객이 선택한 블랙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화려한 언변과 자신만의 철학으로 관객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안락사', 그런 그에게 죽고싶다고 찾아온 정체불명의 여인 '마둔나', 그리고 예고없이 나타난 그녀의 친구 '바보레옹', 과연 그녀는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죽여주는 이야기'는 현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웃음으로 풍자한다.

- 작, 연출/이훈극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 11월 16일(수)~2017년 2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중·고·대학생 50% 할인)
문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배꼽 잡는 대사와 숨 돌릴 틈 없는 스피디한 전개,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설정으로 큰 인기를 끌며 국내 최장기 공연으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연극 '라이어' 시리즈 2탄.

지난 1998년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쿨리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라이어' 시리즈는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450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1탄에 등장했던 주인공인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의 20년 후 이야기를 그린 '라이어 그 후 20년'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여인, 메리와 바바라를 몰래 만나며 행복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존이 메리와 사이에서 낳은 딸 비키와 바바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케빈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면서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리고 있다.

뮤지컬 '미로의 꿈'

일 시 | 11월 21일(월)~12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6만원, S석 3만원
문의 | (주)NMD 노마드 626-0116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된 산동네 마을 감천동이 감천문화마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뮤지컬로 제작한 '미로의 꿈'은 낡은 마을에 예술의 옷을 입혀 문화마을로 탄생시킨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극적 재미와 허구를 가미한 창작뮤지컬이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17살 연실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와 살고 있다. 그런 연실의 집에 '골목길 전문화가' 민구가 세 들어오고, 그는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벽화 그리는 작업을 해나간다. 2008년 전국적으로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부산의 산동네마을을 감천동도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사람들과 재개발 대신 예술을 통한 마을재생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는데... 감천동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감동의 휴먼 드라마로 펼쳐진다.

2016년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선정사업

극단 사계 정기공연 행-어느 교향악단의 심벌즈 연주자 이야기

일 시 | 11월 24일(목)~12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김만중 010-7110-8518



올해 7월 한국 최고의 극작가 이강백과 부산 연극계의 전설 허영길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던 모노드라마 버전의 '행'을 새롭게 2인극으로 구성한 '행-어느 교향악단의 심벌즈 연주자 이야기'.

오케스트라 무대의 한 구석에 가려져 있다가 절정의 순간에 '행'하며 심벌즈를 울려왔던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으로 정년퇴임한 박찬영과 모노드라마 '행'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우명희가 호흡을 맞춰 힘과 섬세함이 결합된 원숙한 연극의 참맛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작/이강백
- 연출/허영길

창작뮤지컬 '해운대 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일 시 | 11월 30일(수)~12월 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구가 지난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에 이어 1년여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한 월메이드 창작뮤지컬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신라 말기 진성여왕 시대, 국내외적으로 어지러운 국정 가운데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차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연출가 박정우가 극본과 연출을 맡고 뮤지컬 배우 한규정(최차원 역), 김효영(위홍 역), 김경원(진성여왕 역) 등이 출연하는 등 연출, 음악은 물론 주연과 조연급 배우, 스태프까지 부산 사람들로 구성, 또다른 'Well Made in Busan' 작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 총제작/김성모
- 작, 연출/박정우
- 작곡/이진실, 박정우
- 지휘/손영진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해운대뮤지컬코러스

연극 '이순신은 살아있다'

일 시 | 11월 30일(수)~12월 9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예매시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문의 | 극연구집단 시나위 070-8612-5244, 010-9662-9322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사회풍자극 '이순신은 살아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정치인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싸운다. 정부는 이순신 동상을 철거하고 광장에 열 명의 역대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로 천명하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정의로로운 장군으로 남아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무너졌다든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 부정부패와 진영싸움으로 얼룩진 사회권력층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이번 작품에서는 광화문 광장의 집회, 시민들의 필리버스터, 순석희의 뉴스, 대통령의 담화문, 개인의 정치적인 발언까지 '정치적인 것'을 무대 위에서 '놀이'로 표현해본다.

- 작, 연출/김동현

뮤지컬 '그날들'

일 시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4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의 |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1800-2575



그가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故 김광석의 노래들로 엮은 창작뮤지컬 '그날들' 부산공연.

지난 2013년 초연 당시 그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그 해 열렸던 제7회 더 뮤지컬어워즈, 제19회 한국 뮤지컬 대상, 제7회 차범석희곡상, 제2회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2014 대구 국제 페스티벌 댄스 어워즈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던 '그날들'은 1992년과 2012년,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대통령의 딸과 수형 경호원의 사리진 행방을 뒤쫓는 경호부장 정학 앞에 20년 전 사라졌던 경호원 동기인 무영과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짜임새 있는 전개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왔다.

2016 우리시대의 삽화 퍼즐 풀이

일 시 | 12월 6일(화)~10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스트리트624**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2만원(15세 이상
관람, 5인 이상 관람 시 20% 할인)

문의 | 극단새벽 245-5919, 010-2581-6674

세상에 대한 풍자와 역설, 은유와 직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짝한 일상을 그린 단막극들을 선보이는 2016 우리시대 삽화 '퍼즐 풀이'.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너스레에 웃다 어느새 짝한 공감을 나누게 되는 '잠에서 깨어나기를 시작으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청년층과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리 위에서', 아직도 잔존하는 남아선호사상을 통해 사회적 관습이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을 짚어보는 '그건 당신들의 상식', 최조실에서 벌어지는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통해 국가권력의 폭력적 면모를 풍자적으로 그려낸 '아닌 밤중에' 등 4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연출/이성민



부산시립극단 제57회 정기공연 사랑 공감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 시 | 12월 8일(목)~10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연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 607-3105, 3147



전국연극제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상인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부산시립극단 객종필 예술감독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작가 오은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제57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지난 1970년대 부산의 영도와 울속도를 배경으로 시대적 아픔과 사랑을 그려낸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과 배우들의 현란한 춤, 그리고 빠른 무대변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작/오은희
- 연출/객종필
- 출연/전성환,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혁우, 염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장현준, 박아영, 전현준, 최현주, 김태원 외

창작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일 시 | 12월 16일(금)~31일(토), 2017년 1월 6일(금)~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12/25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4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made in busan'의 이름으로 다양한 창작품을 선보여온 아트레볼루션이 전하는 또 다른 감동 스토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말 잘 듣고 이쁘던 큰딸에서 노처녀 구박덩어리로 전락한 강희 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힐터파시 초능력자인 힘찬. 솔직하면서도 순수한 힘찬의 모습에 빠진 강희는 힘찬을 사랑하게 되고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생각하는 강희는 프로포즈를 기다리지만 변변찮은 직업과 집안 때문에 고백을 망설이는 힘찬, 과연 두 주인공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사랑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연애와 다른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려낸다.

•출연/박슬기, 채민수, 정종욱, 이태경, 선승일, 김정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5일 일요일 오후 3:00 **MBC삼주아트홀**

입장료 | VIP석 6만 6천원, R석 5만 5천원
S석 4만 4천원

문의 | ㈜이엑스컴퍼니 02-518-6497



비보이와 발레리나의 순수한 사랑을 대서 없이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표현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어느 날, 발레 연습실 옆 거리에 합창광장이 조성된다.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방해 받은 발레리나들과 거리 춤꾼들 간

에 충돌이 일어나고,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을 건 춤 대결이 펼쳐진다. 이때 영문도 모른 채 싸움판에 끼여들게 된 비보이 선에게 첫눈에 반한 발레리나 이안. 결국 발레리나 신분으로는 그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간절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평생 꿈꿔왔던 프리마돈나의 꿈을 접고 길거리 댄서가 되는데...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세계 130개국 250만 명이 관람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7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프렌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2,050개 참가공연 중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6 크리스마스 특집 점프(JUMP)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5일 일요일 오후 2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문의 | 이플림부산 1644-5764



국내 및 전 세계 40여개국 120여 도시 1만여회 공연으로 전 세계 500만 명 이상 관객이 환호한 국가 대표 문화브랜드 '점프' 부산공연.

지난 2003년 7월 초연 이후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판매순위 1위, 미국 브로드웨이 '오픈런' 그랜드 오픈 등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점프'는 공연 최초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는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영동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대서 없이 생생한 라이브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Dance 무용

제57회 울속도 명품 콘서트 발레컬 '운수 좋은 날'

일 시 | 12월 1일 목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대극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울속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16년 마지막 무대.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발레단체인 '김옥련 발레단'과 울속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올리는 발레컬 '운수 좋은 날'은 김옥련발레단이 지난 2012년 1920년대 사실주의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되는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발레와 뮤지컬이 결합된 발레컬 무대로 선보인 작품으로, 2013년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 레퍼토리공연으로 선정되면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2016 정신헌무용단 기획공연 춤·世代共感 - 다섯 번째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정신헌무용단 999-5301,
010-7737-1031



세대별 춤풍경과 우리춤 미학을 해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20대(青春)의 상징으로 무대에 오르는 남성 춤꾼 임현중의 '한량무'를 시작으로 30대(立地) 여성무용가들이 정신헌무용단의 든든한 춤지킴이 최지은, 박혜경, 김수진, 노연정의 '죽흥무', 40대(不惑) 한복 디자이너로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서윤의 '이매방류 살풀이춤', 50대(知天命) 중진무용가 홍기태(전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정진욱(경남대학교 교수)의 2인무 '연가', 60대(耳順) 부산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이성훈의 '동래학춤', 70대(古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전수교육조교인 이명자 명인과 정신헌무용단이 함께하는 '태평무'가 선보인다.

- 예술감독, 연출/정신헌
- 해설/장승헌
- 연주/젊은소리 '쟁이'

부산유니온발레단 해설이 있는 송년의 밤 '호두까기인형' 전막공연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 부산유니온발레단 865-2277,
010-4574-9991



가족과 함께하는 최고의 연말선물 부산유니온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호두까기인형' 전막공연. 독일의 낭만파 작곡가 호프만의 동화를 바탕으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곡을 붙인 2막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호두까기인형을 성탄 선물로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인형과 함께 과거의 나라를 여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용학박사 노영재의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발레콩쿠르 입상자인 발레리노 이승민을 비롯한 재능있는 젊은 무용수들과 어린 발레리나들로 구성된 새싹발레단 등이 출연, 어린이들에게는 환상적인 꿈을, 어른들에게는 잃었던 감성을 되찾아 준다.

신예담무용단 제3회 정기공연 舞談

일 시 |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신예담무용단 010-5473-3241,
010-8819-3862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이수자, 영남교방청춤보존회 부산해운대지회장으로 있는 신예담 단장이 이끄는 신예담무용단의 세 번째 정기공연. 신예담무용단은 지난 2010년 2월 창단한 후 그동안 창원전국국악대전, 진해전국국악대전, 동부민요국악대전, 영덕국악대전 등 다수 국악대전에 참가, 수차례 입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1부/한화무, 영남살풀이, 바라춤, 고풀이
2부/진주교방구거리, 대구입춤(권명하류), 영남교방청춤(박경량류), 풍류미당
3부/태평무(강선영류), 영남진쇠춤(박경량류), 대구소고춤(권명하류), 진도북춤(박병천류), 신명한미당
• 해설/우덕재(부산대학교 교수)

이원국발레단 송년발레 '호두까기인형'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5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고전 발레의 걸작 '호두까기인형'. 환상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명곡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발레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호두까기인형을 선물 받은 주인공 소녀 '마리'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낭만을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 마리우스 피티파와 발레음악의 대가 차이콥스키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한국 발레리노의 교과서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레리노 이원국이 이끄는 이원국 발레단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춤, 환상적 무대 연출, 생동감 넘치는 음악으로 송년의 이추움을 달래준다.

Movie 영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30주기 특별전 타르코프스키와 소쿠로프

일 시 | 11월 18일(금)-12월 11일(일) 시내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 없음)
입장료 | 일반 6천원, 학생 4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6080,
www.dureraum.org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특유의 영화언어와 영상미로 그려내어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영상시인으로 추앙받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30주기를 맞아 타르코프스키와 그의 위대한 계승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소쿠로프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타르코프스키와 소쿠로프'. 이번 상영전에서는 장편 데뷔작이자 가장 위대한 전쟁영화의 하나로 꼽히는 '이반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암 투병 중에 완성된 아름다운 유작 '희생'에 이르는 타르코프스키의 대표작 8편을 비롯해 1978년 만들 어졌으나 반소비에ટે르이라는 이유로 1987년에야 공개된 데뷔작 '인간의 고독한 목소리'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등 소쿠로프의 주요작 14편이 상영된다.
• 12월 3일(토) 오후 2:00
특별강연 '소쿠로프의 심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읽기'(강사/정성일, 영화감독, 영화평론가)

Concerts 콘서트

YB vs 윤도현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의 | (유)디온커뮤니케이션 1522-2274

2016 조용필&위대한 탄생 전국투어 콘서트-부산

일 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 BEXCO
입장료 |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2만 1천원, A석 9만 9천원
B석 8만 8천원
문의 | 아트컴퍼니 1800-2575

윤종신 콘서트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의 | 누리티켓 1566-9621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남진 GENTLEMAN

일 시 |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4만원, 2층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1965년 데뷔 이후 '우수', '가슴 아프게', '남과 함께', '동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오빠 부대의 원조로서 지금도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남진 콘서트. 아직도 변치 않은 가창력과 51년 동안 쌓아온 무대매너, 20대 못지않은 열정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남진의 대표적인 히트곡 외에도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한영애의 4th 'MERRY BLUE'S MAS'-부산

일 시 |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예술지구 P 금사락

입장료 | 균일 7만 7천원
문의 | 더기획 253-5490

일단은 올해도, 2016 DJ DOC 전국투어콘서트-부산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SR석 13만 2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스탠딩 R석 11만원
스탠딩 S석 9만 9천원
문의 | ㈜WSM 1566-5490

2016 김범수 연말 콘서트 '명품BACK'-부산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25일 일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SR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의 | ㈜WSM 1566-5490

2016 SG워너비 콘서트-부산

일 시 |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25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의 | ㈜WSM 1566-5490

2016 국카스텐 연말 전국투어 'HAPPENING'-부산

일 시 |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스탠딩석 11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문의 | ㈜WSM 1566-5490

2016 박정현 연말 콘서트 'LET IT SNOW'-부산

일 시 |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31일 토요일 오후 7: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
문의 | ㈜WSM 1566-5490

제97회 재즈 와인에 빠지다
Goodbye 2016

일 시 |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2016 바이브 콘서트 '발라드림III' 부산행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의 | ㈜WSM 1566-5490

2016 엠씨더맥스 연말 콘서트 '겨울나기'-부산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VIP석 12만 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
문의 | ㈜WSM 1566-5490

2016 이적 전국투어 콘서트 '울려퍼지다'-부산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 BEXCO
입장료 |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B석 8만 8천원
C석 6만 6천원
문의 | 쇼21(주) 1588-1407

Event 행사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트홀 비움 12월 아카데미

일 시 | 12월 1일(목), 2일(금), 5일(월), 8일(목), 12일(월), 15일(목), 19일(월)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트홀
문의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트홀 010-3827-2005, 010-2774-3455

- 1일(목) 오후 7:30
누벨바그의 동반자를 기억하다, 촬영감독 라울쿠다리의 밤
- 강사/정성욱(촬영감독, 동명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강의료/균일 1만원
- 2일(금)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지하1층 강당
최석대 미술평론가의 아트투어 '이중섭 특강과 이중섭 전시 투어'
- 강의료/균일 3만원(이중섭 전시회 입장권 포함, 선착순 30명)
- 5일(월) 오후 7:30
곽근수 음악평론가의 클래식 투어 '베토벤 현악 사중주 그리고 영화 마지막 사중주'
- 강의료/균일 1만 5천원
- 8일(목) 오후 7:30
영화와 패션 '영화와 섹슈얼리티-성소수자패션과 글래머패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화 벨벳골드미안과 7

- 년만의 외출'
- 강사/진경옥(패션디자이너,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강의료/균일 1만원
- 12일(월) 오후 3:00 영화의전당 비프홀 2층 강의실 B
리뷰 2016 부산비엔날레
- 강사/윤재갑(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중국하오아트 뮤지엄 관장)
- 강의료/균일 1만 5천원(선착순 30명)
- 15일(목) 오후 7:30
에세이 영화 '에세이의 영화적 확장, 에세이 영화의 미학적 특징, 대표적 시네아티스트들과 작품소개'
- 강사/차민철(동명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강의료/균일 1만원
- 19일(월) 오후 7:30
영화와 재즈 '재즈 영화와 영화 속 재즈'
- 강사/양두규(재즈클럽 Monk 대표)
- 강의료/균일 1만원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영화음악-기억 속의 공간을 만나다

일 시 | 12월 6일 화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 무료참관 가능(2학기 강좌 마지막회)
문의 | 최정욱 010-3853-6634
• 기획 및 해설/최정욱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3강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일 시 |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 관한 첫 번째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위대한 교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이름 앞에 악성(樂聖)이라는 최상급 존경이 바쳐진 인물로, 빈 고전주의의 완성자이자 낭만주의 설계자인 베토벤의 삶과 주옥같은 그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8강
연말특집 ‘김성민의 렉처 콘서트’

일 시 |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이 연말을 맞아 마련한 특집무대 ‘김성민의 렉처 콘서트’ 강연과 함께 연주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렉처 콘서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류의 구원자로 온 ‘예수’를 주제로 한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 설명과 더불어 소프라노 윤경연의 연주가 펼쳐진다.
 • 피아노/김예지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송년 시낭송회

일 시 |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새흥제병원 대강당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Display 전시

사진 미래색 2016
제8회 KT&G 상상마당
선정작가전

일 시 | 10월 22일(토)~12월 7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2016 오픈스페이스 배
양화선 개인전 ‘Safe zone-nowhere’

일 시 | 11월 22일(화)~12월 10일(토)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00
 (매주 월요일 휴관)

제1회 향목회 회원전

일 시 | 11월 26일(토)~12월 1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갤러리 아인
박경선, 신흥우, 이수동 3인전

일 시 | 12월 2일(금)~2017년 1월 5일(목)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제13회 차경복 개인전

일 시 | 12월 2일(금)~12월 12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2016 일본근대미술협회 초대
작가 부산전

일 시 | 12월 3일(토)~12월 10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럭키보이선데이’展

일 시 | 12월 8일(목)~2017년 1월 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1

국제아트 2인전

일 시 | 12월 12일(월)~12월 17일(토)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송년기획 소품전 한국화, 서양화, 도예

일 시 | 12월 12일(월)~12월 31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Korea On/Off

일 시 | 12월 17일(토)~2017년 2월 22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프랑스의 국제적인 사진창작집단 땅당스 플루 (Tendance Floue) 소속 작가 12인이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의 모습을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 낸 ‘Korea On/Off’展.

제19회 부산사생회 소품전

일 시 | 12월 18일(일)~12월 25일(일)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RECORD



❖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스테파니 아르헤리치(다큐멘터리), 아체크 카스프치크, 찰스 그로브즈, 앙드레 프레빈, 유리 테미르카노프, 가보 타카치-나기, 리카르도 사이(지휘),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미샤 마이스키(첼로), 조슈아 벨(바이올린)

▶ 유로아츠에서 내놓은 아르헤리치의 다큐멘터리와 공연 실황 박스

아르헤리치를 애호하고 편애하는 이는 물론 이제 막 피아노 협주곡과 실내악에 눈을 뜬 초심자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한 마디로 그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아르헤리치 영상물이다. 2002년부터 아이디얼 오디언스, 유니텔, 유로아츠에서 제작, 발매한 영상물을 모아 유로아츠에서 내놓은 이 전집은 7장의 DVD로 구성되어 있다. 세 명의 남자와 세 명의 딸을 낳은, 그리고 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르헤리치의 다큐멘터리부터 쇼팽,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에프, 라벨, 베토벤, 슈만 협주곡과 다니엘 바렌보임, 미샤 마이스키, 조슈아 벨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한 실내악이 수록되었다.



❖ 오토 클렘페러 '그의 시간을 통한 긴 여행', '마지막 콘서트'

필로 브레그스테인(감독), 오토 클렘페러(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다니엘 아드니(피아노)

▶ 영상으로 보는 클렘페러의 발자국과 마지막 마침표

지휘자 오토 클렘페러(1885~1973)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1971년 마지막 콘서트 실황 음반으로 구성된 전기물이다. 1973년부터 클렘페러와 작업해 온 영화감독 필로 브레그스테인은 사진, 악보, 육성 인터뷰 자료를 구성하여 클렘페러의 인생과 음악사상을 전한다. 리마스터링된 1971년 공연 실황 음반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은 노장 클렘페러만의 비장미와 역사적 순간이 전하는 전율이 느껴진다. 180쪽 분량의 부클릿(독일·프랑스·영어)은 이 영상물의 소장가치를 더욱더 높인다. 다큐멘터리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영어 자막을 갖추었다.



❖ 크리스티안 틸레만,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브루크너 교향곡 4번'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 지하의 브루크너를 깨우는 틸레만의 '로맨틱'

지난 2015년 5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실황 영상물로, 2012년 취임한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가 찰떡 궁합으로 브루크너 '교향곡 4번'을 요리한다. 그들의 연주는 느리고 편안하다. 틸레만은 푸르트벵글러, 클렘페러 등의 독일계 지휘자들이 남긴 유산의 무게를 묵묵히 지고 나아간다. 1080i 해상도의 놀라운 화질, PCM스테레오/DTS-HD MA5.0/서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은 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BOOK

❖ 그냥 좋은 장면은 없다



신승윤 지음 / 효형출판 / 304p / 1만 5천 원

영화, 사진, 회화, 광고 등의 시각예술을 접할 때 좋은 장면을 보면 쉽게 잊지 않는다. 그 장면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시각디자인과 영상정보공학을 전공한 저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연구와 창작의 경계를 걸어왔다. 일상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시각적 메시지를 찾는 탐색가인 그는 삶이 곧 시각예술이라고 믿는다. 저자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의도적인 장치의 비밀을 20개의 시각코드로 설명한다. 수평선 위를 걷는 주인공의 애환과 수직선을 올라가는 인물의 사연, 원과 사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대칭이나 대비 구도로 마주 보는 사람들의 관계, 색상과 명암의 상징...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지만 무심히 흘려보냈던 장면의 숨은 시각적 요소들이다. 저자는 이 요소들을 '시각코드'라고 명명했다. 20개의 시각코드를 '선', '모양', '공간', '관계', '명암과 색상', '리듬과 시간'이라는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영화를 예로 들어 각각의 시각코드가 어떻게 메시지를 강화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일러준다. 책을 읽다 보면 '이 장면'에서 '몰랐던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 여행자의 미술관



박준 지음 / 어바웃어북 / 360p / 1만 6천 800원

여행작가 박준 씨의 여정에서 미술관은 빼놓을 수 없는 경유지다. 그가 여행 가방에 고이 담은 그림의 기억들이 책이 되었다. 뉴욕 현대 미술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 초대형 미술관뿐만 아니라 여행길에서 만난 작은 미술관도 수록됐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기 위해 거친 유로스타 대합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른 파리의 작은 카페, 열 명쯤 들어가면 꽉 차는 섬마을의 작은 목욕탕, 피부를 바삭바삭 말할 것 같은 햇볕 아래 외로이 있던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의 주유소... 저자가 떠돌아다닌 세상의 길에서 만난 모든 미술관이 이 책에서 다시 문을 연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관과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예술작품은 그에게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마티스가 그린 <모로코 사람들>을 보고 아직 가보지 않은 모로코의 노란 멜론과 하얀 모스크를 그리워했고, 고흐의 <낮은 구두>를 통해 그림을 보는 기쁨을 알았다. 잠비아 리빙스톤 미술관의 그림들을 보며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의 이질감을 다독였고,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만난 잿빛 얼굴의 여인에게서 방랑자의 비애를 보았다. 길 위에서 만난 그림과 삶의 이야기들이다.

❖ 공연예술 마케팅



조앤 세프 번스타인 지음 / 임연철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640p / 3만 5천 원

미국 예술경영계의 선구자 조앤 세프 번스타인의 책. 저자가 쓴 '입석밖에 없음'을 뜻하는 <Standing Room Only>(국내번역도서 '전석매진'), '통찰력 있는 마케팅'을 뜻하는 <Arts Marketing Insights>(국내번역도서 '문화예술 마케팅')은 예술경영 관계자라면 누구나 연구와 실무에 참고하는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 응·복합시킨 완전 개정판이 <공연예술 마케팅>이다. 이 책은 예술 조직에 필요한 최신 마케팅 전략과 기술을 담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고객서비스, 시장 조사, 가격 책정 전략까지, 역동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는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과 도구를 소개한다. 공연 예술 조직이 예술적·공공적 설립취지에 실제로 충실하면서 영향력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테크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 전략, 전술과 개혁 사례를 결합해 엮었으며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관객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해 관객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무엇(what)'뿐만 아니라 '왜(why)'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 새로운 사고방식과 전략이 성공에 '왜' 필수인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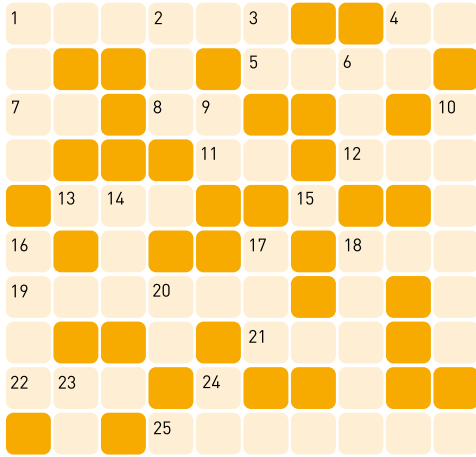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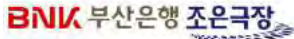
- ① 오는 12월 6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 관객과 만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교육자.
- ④ 프랑스의 화가로 비단비중파를 대표하는 화가. 그의 그림은 웅장한 자연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농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표작으로 '씨 뿌리는 사람', '이삭줍기', '만종' 등이 있다.
- ⑤ '음을 그리고 농동자를 찍다'는 뜻으로, 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거나 끝손질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 ⑦ 본래 오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소프라노 가수를 칭하던 말이었으나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 배우나 가수를 이른다.
- ⑧ 제사를 모시는 대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당에서 쓰는 신주 대신 임시로 만드는 우편을 말한다.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한다.
- ⑩ 조정 경기에서 경주용(競舟用) 배의 카잡이.
- ⑫ 지리산 천왕봉 아래, 높이 1,400m에 지리산 사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⑬ 간편을 쳐서 소리를 내는 간편 악기의 하나. 모든 악기 가운데 음넓이가 가장 넓고, 멜로디를 내는 동시에 음을 조화시키는 악기이다.
- ⑮ 2016년은 원숭이띠, 2017년은 오띠.
- ⑯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그린 김성수 감독, 정우성, 황정민 주연의 범죄액션영화.
- ⑰ 지난 1987년 제작된 후 올해 30주년을 맞아 재개봉해 화제가 되었던 퍼시 애크론 감독의 독일영화. 주제곡 'calling you'로도 유명한 이 영화는 황량한 시막에 위치한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값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 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그의 이름 ㅇㅇㅇ은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닌 순우리말로, 대표곡으로 'May Be', 'When The Love Falls', 'kiss The Rain' 등이 있다.
- ㉑ 일상 생활 중 발작적으로 졸음에 빠져드는 신경계 질환이자 수면장애.
- ㉒ 미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딸로 루이 16세의 왕비. 프랑스 궁정에서 사치의 대명사로 불리며 시민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로열쇠

- ①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교향시. 그의 조국인 핀란드의 애국가라고 할 만큼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세계적인 명곡으로 손꼽힌다.
- ②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저수지, 강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저수지 물 속에 자생하고 있는 고목의 능수버들과 왕버들이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 ③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에 수록된, 줄거리를 가진 여러 컷짜리 그림.
- ④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연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암투와 화유, 교란 작전을 그린 김자은 감독, 송강호, 공유 주연의 영화.
- ⑥ 프랑스 화가 조르주 쇠라가 개발한 독특한 화법으로, 화면을 색채의 작은 획이나 점으로 채워 멀리서 보면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
- ⑨ 태극의 수도.
- ⑩ 발레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춤의 형식을 철저하게 부정하며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아름다운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자유 무용'을 창시해 '현대무용(모던 댄스)의 어머니(개척자)'로 불리는 미국의 무용가.
- ⑭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 장군과 에티오피아 공주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베르디 오페라.
- ⑮ 주인공 조반나의 순애보적 사랑과 전쟁이 남긴 상흔을 그린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소피아 로렌 주연의 고전 영화.
- 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화산재에 묻혀 버린 이탈리아의 도시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 ⑱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예배실에서 불려온 성모 찬가로 카치니, 슈베르트, 바흐, 모차르트, 구노 등 여러 유명 작곡가들이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 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ㅇㅇ'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밤이 날아다녀며 웅웅대는 소리에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 ㉒ 선승(禪僧)이 좌선(坐禪)할 때 접념을 막기 위해 벽을 마주하고 앉음.
- ㉓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섬으로,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하다.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엘로인 플라워

지나호 정답

11월호 퍼즐 당첨자



엘로인플라워 박영애(남구 동제당로)
 정우정(동래구 쇠미로)

조은극장 강용훈(사하구 다대로)
 김민술(사하구 하신변영로)
 김홍수(서구 초장로)
 이명희(남구 수영로)
 이미경(동래구 사직북로)

공간소극장 김미경(남구 신선로)
 김영숙(부산진구 중앙변영로)
 박은희(사하구 비봉로)
 이승우(영도구 태종로)
 최용호(해운대구 센텀동로)

큰집식사권 김미자(서구 충무대로)
 박정희(사하구 하신중앙로)
 이종석(서구 해운이로)
 우수종(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장순원(사하구 대티로)

2016 부산오페라 Week



오페라 갈라 콘서트

2016. 12. 2.(금)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뉴아시아오페라단
문의 1600-6867

오페라 전막 “일 트로바토레”

2016. 12. 3.(토)~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솔오페라단
문의 1544-9373

오페라 인 콘서트 “라 트라비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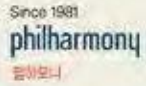
2016. 12. 7.(수)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그랜드 오페라단
문의 051-853-2341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81
philharmony
합주모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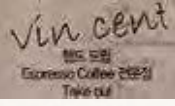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cent
빈드 드림
Espresso Coffee 21821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FLORAL STORE

꽃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CROWN HOTEL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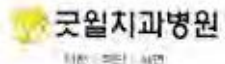


새날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윌치과병원
치과 · 구강 · 세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00(하단) / T. 606-6000(서면)



호텔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치과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세웅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사랑 공감 음악극



돌이와 오 부산항에

동기 내어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
잃었기에 아쉬웠던 사랑이 있다.
이제는 감히 불러본다.
내 사랑을 받아줘.

2016.12.8(목)~10(토)

평일 7시30분 / 주말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연출 **곽종필**
작가 **오은희**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 R석 2만원, S석 1만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 | 607-3105(홍보팀), 607-3147(공연운영팀), 220-5812(을숙도문화회관)
출연 | 전성환 정행심 이현주 황창기 김은희 이혁우 엄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장현준 박아영 전현준 최현주 김태원 김성동 안예은
스텝 | 예술감독/연출 **곽종필** 작가 **오은희** 드라마투르기 **이정하** 음악감독 **김원중** 안무 **김은주** 움직임동작지도 **김지영** 보컬지도 **서상민** 무대디자인 **황경호** 영상감독 **김영민**
의상디자인 **김건임** 특수효과 **김태윤** 분장디자인 **박은주** 무대감독 **정순지** 조명감독 **곽동인** 조연출 **이아슬** 음악조감독 **김지영** 기획 **조승환** 홍보 **신정현**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2016. 12. 22(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 이정필



사회 | 한명창



노래 | 박성희



전선희



이소경



해금 | 천계인



소라노 | 오신기



바리반 | 김창돈



바이올린 | 박광석



색소폰 | 신유식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후원 | **대인투어** | 입장료 | A석 10,000원 B석 5,000원

공연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5, 공연운영팀 051)607-3143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소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시간 월~금 19:00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기념

2016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2016. 12. 31 (토) 오후 10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성기선

첼로 송영훈

마림바 강운서

뮤지컬 가수 강필석 · 박지연

가수 박기영

로비콘서트 빅페이스 오케스트라

사회 손지현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MBC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42 (공연팀), 3100 (홍보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협찬 Lersun PARK 부산공원 동은대어나눔재단 화이트

20
17



해피 뉴이어! 해피 보이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R
NEW YEAR'S CONCERT

특별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7.1.14 SAT 5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제작 | CREDIA INTERNATIONAL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95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에너지(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